Vol.597
2021

새로운 부산상의
통합과 혁신의 새 시대로

# 부산상의

# BCCI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부산상공회의소

안되는 게 없는

# 화승네트웍스

무역과 생활은
**글로벌 종합무역회사**
화승네트웍스로 통합니다

hsnetw.co.kr

# CONTENTS

2021 Vol.597

## 01 오늘을 보다 見

2 BCCI 뉴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산시–부산상의 간담회
장인화 회장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참가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식 개최
장인화 회장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동참
주부산 일본 수석영사 예방
국민의힘 백종헌 부산시당위원장 예방
주부산 미국영사 예방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0년 우수인자위 선정

10 회원기업 서비스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해소 건의활동
부산상공회의소 실무능력향상 교육
지역기업 PL단체보험 지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시행 안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2021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안내
라라스테이션 라이브 커머스 판로 지원

## 02 내일을 듣다 聽

20 기업포커스
화승그룹

24 회원뉴스
조광페인트 / 대선주조 / 세화씨푸드 / 오토닉스
선보공업 / 은산해운항공 / 대선조선 / 오리엔탈정공
BNK금융그룹 / 르노삼성자동차 / 골든블루

## 03 미래를 열다 開

32 경제브리핑
부산지역 장년층 경영자 현황 및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2020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38 BCCI 리포트
부산상의 인포
대한상의 브리프
경영/노무/특허/관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1년 세법개정안

54 안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안내
경성대학교 IPP사업단 일학습병행제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안내

**부산상의** 통권 597호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기획디자인** (주)프린테크 T. 051.301.3113~4 **인쇄처** (주)프린테크
* 부산상의에 게재되는 각종 기사는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BCCI NEWS 01

2021. 8. 23.(Mon)

# 부산상의-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간담회 개최

## 지역 대표기업,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힘 모은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와 부산시는 8월 23일(월) 오후 3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송규정 ㈜윈스틸 회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과 지역기업 대표 10여명, 오성근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현안보고를 듣고 자유로운 간담시간을 가졌다.

특히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기업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부산상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업의 엑스포 유치지지와 범시민유치위원회 활동 참여, 기업 세일즈와 연계한 유치 홍보 및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교섭 활동 등 지역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월드엑스포는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첨단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장으로 기업세일즈 효과가 갈수록 극대화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면 부산에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유치와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5대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부산이 중심이 되어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경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 6월에 국제박람회기구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부터 부산의 기업들과 함께 본격적인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이 엑스포 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기업의 역할을 언급한 만큼, 기업의 참여와 지지는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집을 위해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기업의 범시민 유치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교섭 활동에도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기업인들도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매우 중요한 행사인 만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으로 부산상의를 중심으로 엑스포 유치 지지와 범시민유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한 대규모 홍보가 매우 중요한만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BCCI NEWS 02

2021. 7. 19.(Mon)

#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참가

## 33개 종목 354명 선수단 참가, 금 6, 은 4, 동 10 획득하는 값진 성과 거둬
##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선수단 선전, 코로나 확진자 단 한명도 없이 무사 귀환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된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을 이끄는 선수단장으로 참가하였다.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33개 종목에 3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제32회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연기되어 개최되었으며, 시작 전부터 코로나19 확산과

현지 식료품 문제, 폭염·태풍과 같은 기후 문제, 선수촌 시설 등 많은 이슈와 걱정을 안고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사전에 전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치고, 우리나라 식자재를 이용한 식사제공 등 철저한 관리로 큰 문제없이 선수단 전원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다.

17일간 열린 도쿄올림픽 경기에서는 MZ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신예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양국의 김제덕·안산 선수, 체조의 여서정 선수, 탁구의 신유빈 선수, 수영의 황선우 선수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러한 신예선수들의 활약을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한 장인화 선수단장은 "10대 선수들이 현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만족하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는 자체를 즐기는 모습은 국민들을 매료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며, "신예선수들이 한국 스포츠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도쿄올림픽에서 얻어낸 최고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을 획득한 선수뿐만 아니라 아쉽게 4위를 기록한 선수들까지도 국민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다. 대표적으로 여자배구팀이 조별리그부터 3·4위 결정전까지 보여준 열정과 투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장인화 선수단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여자배구 8강전에서 대한민국과 명승부를 펼친 터키선수단을 찾아 터키에서 일어난 큰 산불에 대해 위로를 전했으며,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며, 터키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돕기위해 묘목 기증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장인화 선수단장은 이번 올림픽을 마치고 "올림픽에서 경기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순수하게 경기를 즐기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과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 평화와 화합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체육계가 다양한 종목 육성과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를 치러낸 선수들, 보이지 않는곳에서 선수들을 잘 도와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을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BCCI NEWS 03 2021. 7. 2.(Fri)

#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식 개최

## 부산상의,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매칭 플랫폼 구축

기업이 신규인력을 실무현장에 투입하는데 최소 1~2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 부산 지역기업들은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매칭받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7월 2일(금) 15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부산IT교육센터, 미래직업전문학교, 새동아직업전문학교와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은 부산상의가 지역기업들의 기술인력 수급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과 전문기술인력을 매칭해주는 인터넷 플랫폼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상의는 전문교육을 받은 기술인력풀을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제공받고,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을 비롯한 직업전문학교는 직접 교육한 기술인력들을 부산상의가 발굴한 지역 우수기업에 매칭할 수 있게 된다.

부산상의는 현재 지역에 일반적인 구인·구직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는 여러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인력 매칭에 특화된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플랫폼 구축 완료 시 지역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이영활 상근부회장은"앞으로 지역기업들이 부산상의를 통해 원하는 기술을 가진 인력채용의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그동안 느껴온 기술인력에 대한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상의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11월에 기업 및 구직자들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기업들이 인재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은 부산상의 이영활 상근부회장, 박종민 사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백형창 원장, 한국산업직업학교 안재수 학교장, 미래직업전문학교 류용수 학교장, 부산IT교육센터 이낙준 대표, 새동아직업전문학교 전원석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동참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7월 6일(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해요 이삼부' 대국민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2030월드엑스포 유치는 전 세계인에게 부산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미래성장동력인 관광·마이스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할 수 있는 메가 이벤트"라면서 "부산시가 6월 23일 국제박람회 기구에 공식적으로 유치 신청을 한만큼 부산상의도 지역 경제계를 결집시켜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함께해요 이삼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정부기관, 재계, 유명인이 참여하는 '캠페인 1'과 일반 국민들이 박람회 유치응원에 참여하는 '캠페인 2'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진행된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캠페인 첫 번째 참가자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주자로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과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을 지명하였다.

## 주부산 일본 수석영사 예방

부산상공회의소 이영활 상근부회장은 7월 15일(화) 10시 30분 부산상의를 예방한 스즈키 마사토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수석영사와 나가이 카즈유키 경제담당 영사를 접견하였다.

이 날 접견에서는 스즈키 마사토 수석영사가 이영활 상근부회장의 취임에 따른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향후 부산상의와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의 경제분야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BCCI NEWS 06_07

2021. 8. 13.(Fri)
8. 31.(Tue)

##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접견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8월 13일(금) 14시 부산상의를 예방한 국민의힘 부산시당 백종헌 위원장과 안병길 수석부위원장, 김희곤 수석대변인을 접견 하였다. 이번 접견은 백종헌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 후 지역 경제계와 상견례 자리 겸 부산경제 현안에 대한 간담을 위해 추진되었다.

장인화 회장은 접견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주길 당부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2030엑스포 부산유치를 비롯한 지역 주요현안에 적극 협력해 가자는 뜻을 전달하였다.

## 주부산미국영사 예방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8월 31일(화) 오후 2시 부산상의를 예방한 데이비드 제 주부산미국영사와 변정환 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고문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에서는 데이비드 제 영사의 7월에 신규취임으로 따른 부임 인사를 나누고 향후 부산상의와 주부산 미국 영사관과의 우호증진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환담을 나누었다.

#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0년 우수 인자위 선정

## 2021년 지역인자위의 날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 포함 3개 부문 수상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 산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부산인자위")가 9월 16일(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2021년 지역인자위의 날' 행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2020년 우수인자위 상'을 수상하였다. 부산인자위는 2013년 출범 이후 이번 수상을 포함하여 7년 연속 우수 인자위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부산인자위는 '지역 일자리제도 개선성과 부문 우수상'과 '우수 전담자상(신현욱 선임연구관)'등 총 3개 부문에서 수상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부산인자위의 이러한 수상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부지원제도 안내 앱(App)인'부산일포유'를 개발하고 적극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를 위한 유급휴가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개최되는'지역인자위의 날'은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우수 운영사례 및 성과를 발굴 공유하고, 향후 지속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본 행사를 통해 우수 지역인자위(3개 지역인자위 수상), 우수 부문(5개 부문)별 포상, 우수 전담자(3명) 포상을 하고 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부산인자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기업을 열심히 지원한 결과 여러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가지게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해소 건의활동

## 1. 에어부산 주식매매정지 조속 해제 건의 (6/15)

● **건의현황**

에어부산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박삼구 전 회장의 횡령배임이었지만 실질심사 원인을 제공하였던 박 전 회장은 이미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고, 현재 에어부산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시를 받고 있어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해소 따라서 에어부산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식매매정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

● **건의처** 한국거래소

● **건의내용**

에어부산은 가덕신공항 건설과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지역의 핵심 앵커 기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과 상징적 의미가 큰 기업인만큼 에어부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식매매정지의 조속한 해제 요청

● **건의결과** 에어부산 주식 매매 거래정지 해제 (7/16)

## 2. 부산·울산·경남 상공회의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7/5)

● **건의현황**

국회는 지난 1월 8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현재 동법은 처벌의 전제조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형벌수준이 과도한 점과 법률상 불명확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예방효과 없이 소송 폭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 상의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 **건의처**

법무부, 법재사법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정부기관

● **건의내용**

-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
-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명확히 법률에 구체화
- 처벌대상의 징역 하한(1년)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 마련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시행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 3. 부산·인천상공회의소 해운공동행위 관련 해운법 개정안 조속 통과 탄원 (8/23)

● **건의현황**

부산과 인천은 해상수출입 무역의 중심지이자 관문으로서 연간 3만여척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이 입출항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컨테이너물동량의 86%이상을 처리하는 중요 해상루트임. 특히, 지역경제GDP의 약 30% 이상이 해운과 항만 연관산업에서 발생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공동행위에 대해 해운업체들을 3년간 무리하게 조사하고 약 5,6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알리면서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운업계가 타격을 받을 경우 부산과 인천 지역이 입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건의처** 국회

● **건의내용**

-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기에 전통적으로 모든 해운국들은 운임, 선박배치, 화물적재 등에 대해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며, 해운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 요청

# 2021년도 4분기 부산상공회의소 실무능력 향상 교육 안내

● **교육 신청절차 : 온라인 상으로만 가능**

| 1. 부산상의 홈페이지 | → | 2. 교육과정 선택 | → | 3. 수강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 4. 교육비 입금 | → | 5. 교육 수강 |
|---|---|---|---|---|---|---|---|---|
| bcci.or.kr | | 참가신청 버튼클릭 | | 회사 · 신청자 · 수강생 정보입력 |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 | 교육수료증 발급 |

● **교육비 결제 : 계좌입금/카드 중 선택 가능**

| 구분 | 결제방법 | 제공서류 |
|---|---|---|
| 계좌입금 | 부산상공회의소 계좌이체 | 교육개최 당일 영수 세금계산서 (온라인 신청자 이메일로 발송) |
| 카드결제 | 당일 현장결제<br>※ 사전에 유선으로 통보 필수 | 카드영수증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은행 031-01-030154-3, 회사/기관명으로 입금 필)

**교육 문의** | **회원사업본부**

TEL. 051-990-7065
E-mail. dudrb@korcham.net


## 2021년도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4분기 일정

| 구분 | 교육명 | 교육기간 | | 1인당 교육비 (천원, 부가세 포함) | | 교육일정(월별) | | | | | | 강사 |
|---|---|---|---|---|---|---|---|---|---|---|---|---|
| | | 일수 | 시간 | 회원 | 일반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0월 | 전사원이 알아야 할 접대비, 소비성경비 지출증빙 관리기술 | 1 | 7 | 77 | 154 | | | | 6(수) | | | 오종원 회계사 |
| | 2일 완성! 실무노동법 마스터 | 2 | 14 | 154 | 308 | | | | 13(수)-14(목) | | | 이원희 노무사 |
| | (신규개설) 비정규직 관리 및 산업안전 | 1 | 4 | 44 | 88 | | | | 20(수) 오전 | | | 김관민 노무사 |
| | (신규개설) 채용절차 및 직장 괴롭힘 | 1 | 4 | 44 | 88 | | | | 20(수) 오후 | | | |
| | (신규개설) 인건비 및 연말정산 | 1 | 7 | 77 | 154 | | | | 29(금) | | | 손창용 세무사 |
| 11월 | 결산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시 누락하기 쉬운 체크포인트 | 1 | 7 | 77 | 154 | | | | | 5(금) | | 오종원 회계사 |
| | 202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실무 | 1 | 7 | 77 | 154 | | | | | 10(수) | | 이석정 세무사 |
| | 인사노무 시리즈 1탄(임금관리 이론과 실습) | 1 | 4 | 44 | 88 | | | | | 19(금) 오전 | | 김민희 노무사 |
| | 인사노무 시리즈 2탄(근로시간(52시간), 휴일/휴가 관리) | 1 | 4 | 44 | 88 | | | | | 19(금) 오후 | | |
| 12월 | 초급입문자를 위한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1차) | 1 | 7 | 77 | 154 | | | | | | 1(수) | 최재윤 세무사 |
| | 기초부터 핵심까지! 2021년도 신고대비 법인결산 세무조정, 신고(1차) | 2 | 16 | 176 | 352 | | | | | | 6(월)-7(화) | 정성훈 회계사 |
| | 실무경력자를 위한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1차) | 1 | 4 | 44 | 88 | | | | | | 10(금) | 손창용 세무사 |
| | 실무경력자를 위한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2차) | 1 | 4 | 44 | 88 | | | | | | 17(금) | 최재윤 세무사 |

※ 사정에 따라 강사진, 일정, 강의실 등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공회의소 안심경영 PL단체보험(제조물책임) 지원

## PL(제조물책임)보험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가입대상

- 완성품 · 부품제조 · 공급 · 판매업체
- 수출 · 수입업체, 명의표시판매업체, OEM업체
- 승강기 · 정수기, 각종 시설물 설치 · 유지보수업체 등

## 가입품목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자동차부품/가전/산업기계/의료기기/건축자재
  - 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섬유/잡화
  - 전기/화학제품/반도체부품
  - 식품/음료 등

## 부산기업에게만 드리는 특별한혜택

- **단체가입 20% 할인** – 인증마크 5% 추가할인(국내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부산시 보조금 20% 추가환급**(최대 100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약** 운영(국내)
- **기업에게 유리한 가입 · 사고처리** –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 개별가입보다 훨씬 싸게, 사고처리는 훨씬 유리하게!
- **대한상의와 현대해상(주간사), KB, MG, NH**가함께하는 믿을수 있는 보험
- **대한상의회원과 동일한 복지서비스 제공**
  – 아고다 · 하나투어 · 그린카 · CGV · 시원스쿨 · 건강검진 · 예다함 · 꽃배달 · SK임직원몰 등

## 가입절차

보험료 견적요청 (기업체) ▶ 보험료 산출/안내 (대한상공회의소) ▶ 보험료 검토/입금 (기업체) ▶ 증권/영수증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20% 보조금 추가환급절차**

지원금신청서 제출 (기업체) ▶ 서류검토 (부산상공회의소) ▶ 익월 지원금입금 (부산상공회의소)

##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보험가입)**
• 전화 : 02-6050-3875~8 • 팩스 : 070-7614-3422 • 메일 : PLcenter@korcham.net • http://PL.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보조금환급)**
• 전화 : 051-990-7064 • 메일 : skang6@korcham.net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부산지역 수출 및 제조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편의성 제공, 신뢰도 향상을 위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을 시행합니다. 작성된 서류의 정확성에 대해 부산상공회의소의 전문가가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부산지역 수출 및 제조기업

나. 비　　용 : 무료 (전액 부산상공회의소 지원)

다. 지원범위 :

- 제조업체 원산지 확인서 작성지원
- 원산지확인서 오류 확인 및 정합성 확인
- 부산 FTA활용지원센터장 명의의 확인증 발급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goldtut@korcham.net) 송부

마. 문 의 처 : 부산 FTA활용지원센터 (T.051-990-7016)

※ FTA센터에 확인받은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면 원청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니 참고하시고, 원청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본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상공회의소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기업에게는 위기 극복의 동력을! 청년에게는 IT 분야 취업 기회를!**
**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900,000원, 6개월 동안!**

부산상공회의소는 미취업청년에게 IT 분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에서 향후 도래할 디지털·언택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IT직무 신규채용인원 1인당 최대 월 1,900,000원(최대 6개월) 지급**

| IT 분야 채용 청년 | 기업 지원금 | |
|---|---|---|
| 월지급임금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 200만원 이상 | 월 180만원 | 10만원 |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원 |

※ 채용한도 |
참여신청일 직전 월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이내 (최대 30명)

● **IT 분야 4가지 직무 유형 내에서 채용**

| 직무 유형 | 내용 |
|---|---|
| Ⅰ유형: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
| Ⅱ유형: 빅데이터 활용형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
| Ⅲ유형: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
| Ⅳ유형: 기타 |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직무 |

※ 기업 자체 모집·선발 가능 |
"채용일로부터 10일 內" 온라인 채용자명단 통보 필수
※ 기채용자 지원 가능 |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內"에 채용한 IT 분야 청년 지원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중복 참여가능(청년공제 자격 갖춘자에 한함)

## 참여대상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IT 관련 직무에 취업 예정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적용(만 39세이하)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5인 미만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등 일부 업종 가능
**청년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정규직 채용 포함), IT 활용 직무 필수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 1. ~ 2021. 12. (예산 범위내 인원 소진시까지)
- 채용일 및 참여신청도 2021. 12. 31. 이내

**신청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
- 온라인 신청 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
- (자격확인기업)필수서류 e-mail 제출 후 완료

**신청 및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T. 051-990-7084, 7088~7089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

부산상공회의소는 202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운영 중입니다. '21.9.8.부터 추경 사업이 시작됨을 알려드리니, 정규직 취업일 6개월 이내 신규 취업자에 대하여 활용바랍니다.

## 기업 신청자격

- 청년공제 가입(예정)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참여가능
- 청년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연장수당 제외, 주40시간 기본급 기준)**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 참여불가

## 청년 신청자격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중인자·휴학자 참여불가

※ 정규직 취업일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필수(기간 도과자 참여 불가)

– 단, '21. 2. 8.~4.7.까지 정규직 취업자는 '21. 10. 7.까지 중진공 청약 완료

(기업 및 청년 워크넷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 심사완료 : '21. 10. 6.까지 필수)

## 지원 내용

- **2년형**
  - ► 기업 : 기업기여금 300만원 지원(고용부 지원, 청년 적립 부분)
    ※ 50인 이상 기업 : 기업자부담금 60만원+기업기여금 240만원(고용부 지원)
    ※ 기업자부담금 : 60만원 부담(매월2.5만원씩 24개월)
  - ► 청년 : 청약승낙일로부터 2년 만근 시 1,200만원 수령
    ※ 구성 (청년적립금 300만원+기업기여금 300만원+취업지원금 600만원)

## 진행 절차

청년·기업 워크넷 참여신청 (work.go.kr/youngtomorrow 신청, (운영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 지원협약 체결 (운영기관–기업 간) ▶ 정규직 채용(취업) (근로계약 체결 및 채용명단 운영기관에 발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기업, 청년 ≫ 중진공) ▶ 지원금 지원(적립) (– 청년 : 매월 2년간 적립 – 기업 : 1개월차부터 6개월씩 2년간 지원금 적립 신청) ▶ 만기공제금 지급(청년) (2년 만근 시 공제금 1,200만원)

※ 워크넷 신청 후 운영기관 승인 확인받은 다음날부터 청약신청 가능
(처리기간 감안하여 최소 10영업일 전 연락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Tel 051–990–7071 Fax 051–990–7149, 7185

# 2021년도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

| 공동훈련센터명 | 훈련대상 | 훈련분야 | 훈련과정명 | 훈련일수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
|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문의 T. 051)610-3124~7 | 재직자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소형무인기를 활용한 시설물 점검 | 2 | 16 | 15 |
| | | 운전·운송 |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3D 맵핑] | 2 | 16 | 15 |
| | | 기계 | 3D DATA 구축을 위한 ICADPLUS 과정 | 3 | 20 | 12 |
| | | | AutoCAD[2D]를 활용한 기계부품설계실무 | 2 | 16 | 15 |
| | | | Inventor를 활용한 기계요소설계[3D] | 2 | 16 | 15 |
| | | | SolidEdge 3D부품 설계실무 | 3 | 20 | 24 |
| | | | 설계자를 위한 구조해석 및 열해석 | 2 | 16 | 12 |
| | | |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PLC(MELSEC) 제어 실무 | 2 | 16 | 15 |
| | | |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PLC(SIEMENS) 제어 실무 | 2 | 16 | 15 |
| | | | 품질 데이터 분석 실무자과정 | 2 | 16 | 20 |
| | | | ISO품질 내부감사원 적합성 평가실무 | 2 | 16 | 40 |
| | | | AM을 활용한 라이버러리 구축 실무(유급) | 5 | 40 | 40 |
| | | | AVEVA Design을 활용한 개조(역설계) 실무(유급) | 5 | 40 | 40 |
| | | |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 1 | 8 | 20 |
| | | 재료 | 설비보전을 위한 용접 | 1 | 8 | 10 |
| | | 정보통신 | 4차산업혁명의 비즈니스시스템 구축 | 1 | 8 | 20 |
| | | | 파이썬 [Python]활용 업무 자동화 | 2 | 16 | 15 |
| | | 환경·에너지·안전 |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 1 | 8 | 15 |
| | | 경영·회계·사무 | 생산 데이터 관리(엑셀)_중장년 ICT | 2 | 16 | 40 |
| 부경대학교 문의 T. 051)629-5221, 5231~3 | 재직자 | 건설 | 건축물 전문관리자 실무 | 1 | 8 | 100 |
| | | | 건축물 관리법령 실무 | 1 | 8 | 100 |
| | | | 설비 도면해독법 실무 | 1 | 8 | 40 |
| | | | 조경시공 및 관리 실무 | 1 | 8 | 100 |
| | | 기계 | 제조리드타임 개선 실무 | 1 | 8 | 25 |
| | | 정보통신 | 스프링 프레임워크 실무 | 3 | 24 | 15 |
| | |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실무 | 3 | 24 | 15 |
| | | 경영·회계·사무 | 스프레드시트 활용 실무 초급_중장년ICT | 1 | 8 | 20 |
| | | | 스프레드시트 활용 실무 중급_중장년ICT | 1 | 8 | 20 |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문의 T. 051)790-1082~7 | 재직자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디자인 국책 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제안서 만들기 | 1 | 8 | 20 |
| | | |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스킬향상 | 1 | 8 | 60 |
| | | | 디자인소스 개발을 위한 캘리그라피 | 5 | 15 | 20 |
| | | | 디자인 표현기법 확장을 위한 펜 일러스트 | 5 | 15 | 20 |
| | | | 디자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유화 페인팅 기법 | 5 | 15 | 20 |
| | | | 패키지디자인개발 실무 | 4 | 12 | 20 |
| | | | 빅데이터분석과 시각화 | 1 | 8 | 40 |
| | | | 디자인 구현을 위한 가죽 소재 활용 | 4 | 12 | 20 |
| | | | 3D 프린터 활용실무 | 5 | 15 | 20 |
| | | | SNS에 최적화된 카드뉴스 제작 노하우 | 1 | 8 | 20 |
| | | | 아이디어 시각화를 위한 디지털드로잉 | 4 | 12 | 20 |
| | | |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 1 | 8 | 60 |
| | | | 고퀄리티 영상편집을 위한 프리미어 활용법 | 5 | 15 | 20 |
| | | | 애프터이펙트를 활용한 모션그래픽 | 5 | 15 | 20 |
| | | 인쇄·목재·가구·공예 | 레이아웃 활용 스킬업 핵심실무 | 5 | 15 | 20 |
| | | |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그래픽 제작 | 5 | 15 | 20 |
| | | | 이미지 및 디지털 매체 편집을 위한 포토샵 활용법 | 4 | 12 | 20 |
| | | 경영·회계·사무 |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파워포인트 활용_중장년ICT | 1 | 8 | 40 |

※ 훈련과정 등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usanhrd.or.kr/) 의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교육훈련」 참고

| 공동훈련센터명 | 훈련대상 | 훈련분야 | 훈련과정명 | 훈련일수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
| 한국폴리텍대학<br>부산캠퍼스<br>문의<br>T. 051)330-7751~4 | 재직자 | 건설 | (공동주택) 방수 개론 | 1 | 8 | 40 |
| | | 기계 | NX(UG) 3D Modeling | 1 | 8 | 20 |
| | | | CNC선반 프로그램 작성 및 확인 | 1 | 8 | 10 |
| | | | CNC선반 장비 조작 및 운용실습 | 1 | 8 | 10 |
| | | | CNC밀링(머시닝센터)프로그램 작성 및 확인 | 1 | 8 | 10 |
| | | | CNC밀링(머시닝센터)장비 조작 및 운용실습 | 1 | 8 | 10 |
| | | | CATIA(CAM) 프로그램 작성 및 확인하기 | 1 | 8 | 10 |
| | | | CATIA(CAM) 프로그램 검증하기 | 1 | 8 | 10 |
| | | | 기계정비(공압제어) | 1 | 8 | 20 |
| | | | 기계정비(유압제어) | 1 | 8 | 20 |
| | | | (MELSEC) PLC과정 | 2 | 16 | 10 |
| | | | (XGI) PLC과정 | 1 | 8 | 10 |
| | | | 스마트팩토리 실무 | 1 | 8 | 30 |
| | | | 그린카 정비 실무 | 1 | 8 | 20 |
| | | | 전기자동차 정비 실무 | 1 | 8 | 10 |
| | | | 항공기 기체치공구 설계 및 제작(유급) | 5 | 40 | 20 |
| | | | Inventor를 활용한 3D CAD 기초 | 1 | 8 | 30 |
| | | | Inventor를 활용한 3D CAD 심화 | 1 | 8 | 30 |
| | | 전기·전자 | 수변전설비(공동주택) 일반 | 1 | 8 | 20 |
| | | | 수변전설비(공동주택) 심화 | 1 | 8 | 20 |
| | | | (공동주택) 전기재해 예방 | 1 | 8 | 40 |
| | | | 항공기 자동제어시스템 유지정비 향상과정(유급) | 5 | 40 | 20 |
| | | 영업판매 | (공동주택) 장기수선 전산 실무 향상과정_중장년ICT | 1 | 8 | 60 |
| 한국해양대학교<br>문의<br>T. 051)410-4488,<br>4496, 5240, 5257 | 재직자 | 경영·회계·사무 | 사내표준화(QM,QC)관리 실무 | 1 | 8 | 30 |
| | | | 품질경영시스템 전환을 위한 구축실무 | 1 | 8 | 20 |
| | | 운전·운송 | 선박보조기계실무 | 1 | 8 | 40 |
| | | | 선박평형수 관리교육 | 2 | 16 | 40 |
| | | | 고전압 운용교육 | 1 | 8 | 15 |
| | | | 고전압 직무교육 | 3 | 22 | 30 |
| | | | 선박 역량강화 스킬업 | 1 | 8 | 40 |
| | | 영업판매 | 제안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실무 | 2 | 15 | 40 |
| | | 기계 | 스마트 공장 엔지니어링 문제해결 | 1 | 8 | 20 |
| | | | 설계도면분석을 통한 부품모델링 | 2 | 16 | 15 |
| | | | IoT융합 스마트 팩토리 구축 | 1 | 8 | 40 |
| | | 전기·전자 | 스마트 자동화제어시스템 실무 | 1 | 8 | 15 |
| | | | 3D프린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모델링 | 1 | 8 | 15 |
| | | 정보통신 |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전환 | 3 | 24 | 20 |
| | | 환경·에너지·안전 | 조선해양기자재 진동규격 및 측정평가 | 2 | 16 | 30 |
| | | |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실무 | 2 | 16 | 20 |
| | | | Ex Awareness(방폭) | 1 | 8 | 40 |
| | | 경영·회계·사무 | 응용프로그램 활용 향상_중장년ICT | 1 | 8 | 40 |

※ 채용예정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실업자), 재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 대상 훈련임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안내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인재 구하기 힘드신가요? 정부지원금 받고 국가자격 갖춘 핵심인력을 직접 양성하세요!**
**정부지원금 1,400만원을 참여기업에 지원해 드립니다!** (* 세부 사항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학습기업 혜택

● **세액공제, 대출금리 우대, 공공입찰 및 인증평가 가점**

- 사회보험료 등 일종 세액 공제
- 시중은행 기업대출금리 우대(신한, 국민, 산업)
- 신용보증, 기술보증 보증·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우대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1순위로 우대
- 조달청 물품 제조 및 구매 낙찰자 결정시 가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 사업장 선정시 가점

● **훈련지원금 지급**

|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 기업 지원금 | 월 80만원* 학습근로자 수 | |
| 기업 담당자 수당 | 월 583,000원 | 1명 추가시 83,300원 추가지급 |
| 훈련과정 개발수당 | 1,150,000원 | 개발 담당자 최초 1회 |

## 참여신청 문의

● **참여자격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

●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051-990-7057~8)**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라라스테이션 라이브 커머스 판로 지원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 6. 25 ~ 2022. 6. 24

**주관 및 수행기관** 부산상공회의소, 라라스테이션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부산지역 소재 기업**

## 지원내용

| 구분 | | 지원내용 |
|---|---|---|
| 촬영 | 스튜디오 장소 | 무료 지원(예약 필수) |
| 라이브 커머스 | 스태프, 쇼호스트, 홍보 이미지 제작 등 | 지원대상 업체 : ₩500,000 1회 (50%할인, 기존 가격 ₩ 1,000,000 1회)<br>※서울라라스테이션 : 최소 150만원~400만원 |
| 교육 | 스마트스토어 운영 및 관리 교육 | 지원대상 업체 : 최소 30%~최대 40% 할인<br>(₩ 750,000 일 3시간 15시간 수업 기준) |
| | 쇼호스트 과정 교육 | 지원대상 업체 : 최소 30%~최대 40% 할인<br>(₩ 3,600,000 12주 72시간 수업 기준) |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청 가능

## 신청방법

참가신청 (참가업체) › 지원 대상 확인 (부산상공회의소) › 지원 상담 내용 (라라스테이션) › 정식 방송 개시 (라라스테이션)

##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강학수 주임**
전화 : 051-990-7066
팩스 : 051-990-7099
메일 : khsbcci@korcham.net

**라라스테이션 박지웅 상무이사**
전화 : 010-6512-0711
메일 : lalapark@lalastations.com

**라라스테이션 김지웅 프로듀서**
전화 : 010-7322-3800
메일 : lalakim@lalastations.com

100년 기업을 향한 **화승그룹,**

# 2023년 70주년을 향해 뛰다.

화승알앤에이 외부 전경

2023년 70주년을 맞는 화승그룹이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준비에 나섰다.
화승그룹은 그룹 비전 등 70주년을 맞을 준비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화승그룹은 1953년 동양고무라는 상호로 창립해
현재 자동차 부품, 소재, 신발 제조자개발생산(ODM), 종합무역, 화학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베트남 등 글로벌 진출을 비롯해 과감한 사업 다각화와 집중을 통한 기술경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시장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 자동차부품 사업, 비자동차 사업 더해 새로운 미래 개척 준비 가동

자동차 핵심 부품 전문 기업 화승알앤에이는 사업과 투자를 맡는 존속법인 '화승코퍼레이션'과 자동차 부품 사업 전문 신설법인 '화승알앤에이'로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비자동차 부문에서 산업용 고무제품 등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나 각종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 종합무역 사업 분야를 맡는 자회사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헤드쿼터(GHQ)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설된 화승알앤에이는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소재 사업군의 화승소재는 국내 제2공장인 명례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인도 CMB 공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해외영업 전략을 펼치면서 글로벌 제품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합성고무인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열가소성수지(TPE), 실리콘 등 신소재를 기반으로 최근 일본,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략적 협력 및 제휴에도 나서고 있다.
화승케미칼은 충남 아산에 있는 C&D중앙연구소를 통해 필름 사업과 신발 접착제, 자동차 코팅제 사업 등 화학 사업을 더욱 강화해 화학 전문 기업으로 미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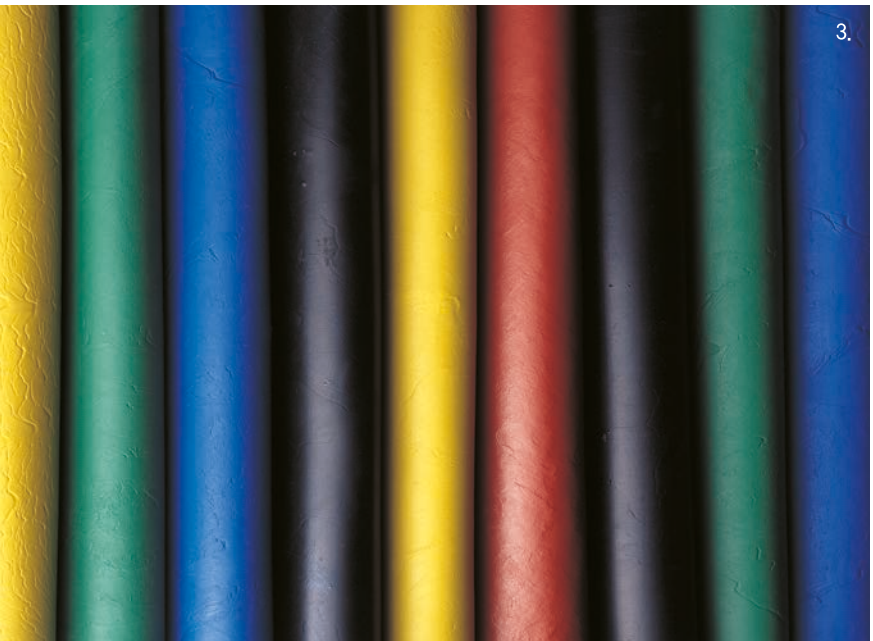
## 화승의 무역 전문 회사, 화승네트웍스
## 친환경 사업, 글로벌 SCM으로 새로운 도약

그 밖에 특히 무역 유통 사업군인 화승네트웍스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사업인 바이오 중유 사업, 원자재 구매 및 판매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SCM : Supply Chain Management), 기업 소모 자재 유통(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철강, 식육 등의 일반 무역 사업에 경쟁력 있는 무역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합무역상사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 사업인 바이오 중유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기력 발전용 벙커C유와 선박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다. 화승네트웍스는 현재 바이오 중유 원료 유통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오 중유 원료 전문 소싱을 통해 국내 바이오 중유 원료 유통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1.

2.


3.

화승네트웍스는 MRO사업을 통해 B2B 구매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MRO 자재 (포장재, 소모자재)의 구매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기업의 업무 효율화 및 비용절감, 고객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모성 자재는 수불 관리가 어려워 표준화 등의 제약이 많았으나 화승네트웍스는 최근 모바일 서비스 도입과 SCM(공급망 관리) System을 구축해 고객사의 원가절감과 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MRO 구매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화승네트웍스는 미국, 멕시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곳곳의 법인과 현지 사무실을 통해 글로벌 SCM을 실현하고 있다.

1.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님
2.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화승직원의 모습
3. 화승소재 고무제품

4.

5.

의류 부문 임원이었던 대런 해밀턴을 각각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스포츠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리복 신발 ODM과 나이키, 언더아머 모자 OEM 사업에 주력해 왔다. 스포츠 의류 OEM 사업에 진출해 지난해 1조 2000억원이던 매출액을 2025년 3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승그룹은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사업군 내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악재와 경기 하락으로 국내 기업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화승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로 '인화'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는 화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있다.

선택과 집중,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술경영이 만들어낸 화승그룹은 현재 5개 사업군, 국내외 60개의 계열사, 연 4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의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했다.

화승그룹은 올해부터 내실다지기에 나선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업 100년을 준비해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예정이다.

## 신발ODM에서 모자, 의류까지 스포츠 패션 ODM 사업으로 확장한 화승의 저력

스포츠 패션 ODM 사업군인 화승엔터프라이즈도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해 스포츠 의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화승비나(베트남)와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중국), 화승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3개 법인을 보유한 국내 코스피 상장 회사이다. 스포츠 의류 사업 진출로 매출액을 5년 안에 3배가량 확대하는 목표도 세웠다.

아디다스 그룹 신발 부문 임원이었던 마이크 앨리치노와 나이키의

4. 화승알앤에이 자동화 라인
5. 화승비나(베트남) 자동화 라인
6. 화승알앤에이 자동차부품 웨더스트립
7. 화승비나 전경사진

7.

Business News

## 조광페인트

### 2021 부산형 히든챔피언 선정

조광페인트가 부산광역시로부터 '2021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부산형 히든챔피언'은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인증으로, 부산 경제의 혁신 성장과 지역 발전 주도를 통해 고급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인증 수여식은 지난 7월 15일(목) 오후 14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조광페인트 양성아 대표이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문환 부산중소기업청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대선주조

### 동래경찰서와 실종경보문자제도 활성화 공동 홍보

대선주조는 7월 26일 '실종경보문자제도'를 알리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와 공동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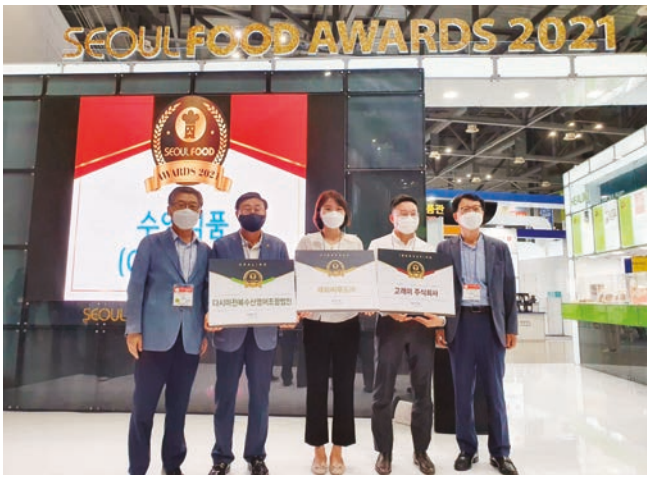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이번 활동으로 대선주조는 '실종경보문자제도, 실종 가족을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인쇄 문구를 이번 여름에 출고되는 대선소주 뒷면 보조라벨에 부착한다.

실종경보문자제도는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이다. 최근 포항에선 문자 발송 3분 만에 치매노인을 발견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동래경찰서와 협력하게 됐다"며 "이번 홍보활동으로 실종경보문자제도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세화씨푸드

### '서울푸드 어워즈 2021' 기호식품 부문 수상




세화씨푸드는 7월 26일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된 2021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에서 국내·외 우수 식품발굴 소개를 위해 진행한 '서울푸드어워즈 2021'에 선정되었다.

이번 '서울푸드 어워즈 2021'에는 △힐링(Healing, 웰빙 푸드, 건강식품, 오가닉 식품) △이노베이션(Innovation, 제조 방법이나 패키지가 혁신적인 식품) △기호식품 △수입식품 4가지 분야로 나눠 선정하였다.

세화씨푸드(주)는 '장흥 무산김으로 만든 김부각' 이란 제품으로 『기호식품 부문』에서 선정되어 45년 전통 김 전문 제조·수출업체의 자부심을 높였다.

'장흥 무산김으로 만든 김부각'은 전남 장흥에서 생산된 고품질 유기농 김을 사용하고 스낵 제품으로 국내산 찹쌀 사용 비중이 높고 MSG를 첨가하지 않은만큼 건강한 스낵제품으로 특유의 식감이 좋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웰빙 간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제품인 점도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 오토닉스

###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오토닉스가 지난 7월 27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국내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제도는 청년 고용창출 실적, 여성 및 고령자 일자리 배려, 노동시간 단축 등의 평가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행정적 및 재정적인 우대 혜택과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부여한다.

오토닉스는 현재 고용 인원(829명)의 95%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신규 고용 인원이 26%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만34세 이하의 청년 채용이 76%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 확대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 일자리 확대 및 출산·육아 장려 제도 시행 ▲정년 후 기간제 근로 계약 실시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사내 캠페인 시행 등의 제도를 통해 일자리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토닉스는 '인재는 곧 그 기업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인재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올바른 기업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Business News

## 선보공업

### 사하구 다문화가정 및 탈북민에 마스크 전달

선보공업은 8월 11일 사하구의 다문화가정 및 탈북민에 마스크 1만여 장을 기부했다.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빠르게 번져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운 가운데 부산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에 힘을 보태어온 선보는, 이번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부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가 처음 번져나가던 지난해 3월부터 선보의 기부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 및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특별 모금에 1억 원을 기부했고, 김해시청에 비타민D 1만 개, 김해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했다. 최금식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하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사하구청과 소방서에 비타민D를 나누고 사회복지관과 사하구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했다.

마스크 수급에 차질을 빚던 때에는 공적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직영 및 협력사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2주 단위로 마스크를 지급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임직원에게 KF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당 시차 운영, 손 소독제 비치, 사무실 방역 등을 진행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은산해운항공

### 프리미엄 생수 사업 진출

**▶ 프리미엄 생수 '헬시언'으로 유명한 ㈜금천게르마늄 인수**

은산해운항공은 9월 5일 프리미엄 생수로 유명한 '헬시언'을 생산하는 ㈜금천게르마늄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1993년 설립된 은산해운항공은 국내외 물류 관련 사업을 주로 해왔으나, 2019년 은산바이오를 설립하여 관련분야에 진출한데 이어 이번에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도 진출을 선언하였다.

은산해운항공이 인수하기로한 금천게르마늄은 1995년 설립되어 프리미엄 생수로 유명한 '헬시언(Healthy-On)'을 생산해 국내 판매는 물론 일본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다.

헬시언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약알칼리(pH 7.6~8.1) 성분을 띠는 등 인체에 효능이 있는 생수로 알려져있으며, 다른 제품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은 지하 150m 암반층에서 용출되는 천연 광천수를 단일 취수공으로 퍼올려 단일 공장에서 마이크로 필터 여과와 자외선 살균 등 물리적 공정 처리만으로 생산된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네랄과 천연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헬시언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수출 협의도 진행중에 있다.

은산해운항공은 기존의 판매영역을 통해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한편 회사 직원 350여 명과 가족에게도 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 대선조선㈜

### 중남미 콜롬비아에 조선 기술 수출

대선조선(주)이 중남미 콜롬비아 조선소 '코텍마레'에 플로팅 독 제작에 필요한 설계와 엔진, 각종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MOU를 맺고 추후 공급할 예정이라고 8월 26일 밝혔다. 대선조선은 지난해부터 파마나 운하 인근에 있는 코텍마레 조선소와 조선 설계와 생산 기술 지원 사업을 협의해왔다.

대선조선은 최근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대선조선 장인화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에서 양국 조선업 협력사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면서이 사업 내용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대선조선은 콜롬비아 현지에 수리선 사업을 위한 플로팅 독 건조를 추진 중이며 콜롬비아 정부 승인을 거쳐 11월 정식 계약을 할 예정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 콜롬비아에서 계획 중인 미래 조선업 발전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선조선은 2014년과 2017년에 남미의 페루에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형 조선소나 전문 설계 회사의 단순 기술 지원 사업을 넘어 중형 조선소에서도 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선박의 건조, 생산 분야까지도 사업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번 콜롬비아와의 협력 사업 전개는 카리브해의 가운데 위치한 특성과 세계 물류의 중요한 곳인 파나마 인근에 콜롬비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으로 보여져 성공 여부에 관심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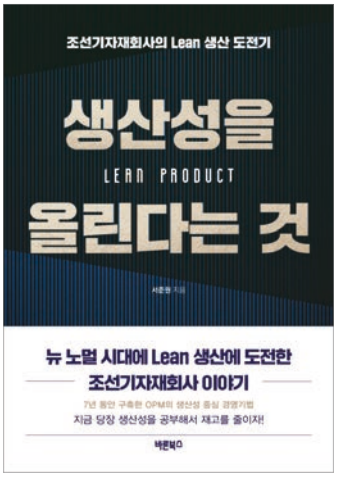
Business News

## ㈜오리엔탈정공

### 뉴 노멀 시대에 Lean 생산에 도전한 조선 기자재회사 이야기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 출판

㈜오리엔탈정공 부사장 서준원(오리엔탈 정밀기계 대표 이사 겸임)은 자동차 회사의 전유물이었던 Lean 생산방식을 조선 기자재 회사에 접목하여 7년간 매일 현장을 관찰하고 매달 빠짐없이 진행한 80여 회의 워크숍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생산성 향상 도전의 전 과정을 정리한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이란 책을 출간하였다고 9월 6일 밝혔다.

Lean 생산 방식을 해 나가면서 Comapct Factory, 빠른 PDCA, 목표 관리가 자연스럽게 경영 관리 기법으로 추가되었고, 회사가 약 7년간 계속해온 생산성 향상 운동은 제42회 국가 생산성 대회에서 '강소기업 산업통산부 장관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




이 책은 실제 추진했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분임조 활동 및 사내 아이디어 대회 등 많은 일화를 포함하고 있고, 모두가 접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Lean 생산 방식에 도전하면서 겪은 구성원들과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 불경기를 돌파하면서 내린 과감한 결정 등 스마트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스마트해야 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담고 있다.

## BNK금융그룹

### 2021년 대한민국 회계대상 최우수상 수상

**▶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체질 개선에 높은 평가**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은 9월 6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회계대상'은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 중 사업보고서 평가와 심사 등을 통해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민국 회계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신제윤 前 금융위원장)는 회계법인들이 추천한 우수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후보 중 대상(카카오)을 포함한 4개 기업을 수상자로 발표했으며, BNK금융은 금융회사로는 역대 두번째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NK금융은 최근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대응해 각 계열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소통 강화로 신뢰성과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독립성 있는 감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내부감사의 수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각종 이슈에 대한 재무영향 검토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회계자문법인 활용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시간 확대 등 그룹 회계감사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적극 지원했으며, 그룹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는 등 그룹의 회계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지난 2018년에 그룹 감사 담당 임원을 선제적으로 선임해 그룹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 프로세스 투명성 제고 등 내부통제 체질을 개선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점도 이번 수상에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토대로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BNK금융은 지난 해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단계적으로 참여 중이며, 올해는 지주와 은행 중심으로 이사회 내 별도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Business News

# 르노삼성자동차

## 2020년 및 2021년 임단협 조인식 개최

**▶ 향후 노사 함께 XM3 유럽 수출 공급과 신차 프로젝트 수주에 전력 다짐**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닉시뇨라)는 9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및 2021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는 조인식을 진행했다.

작년 7월부터 진행된 르노삼성자동차 임단협은 지난달 31일 노사간 미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한 대타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고 3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5% 찬성으로 타결되었다. 이날 조인식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도미닉 시뇨라 사장과 박종규 노동조합 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2020년 임단협 및 2021년 임금 협상은 최종 마무리되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이날 서명한 합의서를 통해 노사 및 노노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 물량 확보가 미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수적 과제임을 공동으로 인식하며 임단협 합의 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2022년 연말까지 노사화합기간으로 정하며 노사간 미래 생존과 고용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전 세계 판매 차량을 생산 중인 XM3는 올 6월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며 지난 8월까지 올해 총 28,712대가 수출되었다. 이번 임단협 마무리 이후 수출 물량 공급에 더욱 속도가 붙는다면 연말까지 6만대 이상 유럽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초 르노그룹과 지리홀딩그룹 간 MOU 발표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리홀딩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링크&코(Lynk&Co)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링크&코의 친환경 플랫폼을 활용한 신차 개발을 진행해 내수 판매는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 대선조선㈜

### 이수근 대표 은탑산업훈장 수상

▶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선조선㈜ 이수근 대표가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제18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수근 대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부산대 조선공학과 연구교수 등을 거쳤으며, 2016년 대선조선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9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수근 대표의 지휘 아래 대선조선은 다목적지원선, 참치선망선, 카페리, 스테인리스(SUS) 화학제품 운반선 등 각종 특수선을 만들며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꾸준히 일감을 확보한 결과 중소조선의 틈새시장 개척과 고용창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수상에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수근 대표는 "중형 조선소에 맞는 적정 기술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킨 결과 2010년 이후 채권단 관리 속에서도 우리 대선조선이 지켜온 '기술 인력의 유지와 양성'의 결실이 지난 4월에 채권단 관리를 극복하고 부산 향토 기업인 '동일철강 그룹' 일원으로 회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10년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큰상을 받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골든블루

### 취약계층의 따뜻한 추석을 위한 희망상자 전달

▶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총 50가구에게 '희망상자' 직접 전달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 자원봉사단은 지난 9월 8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최근 3년간 부산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 '희망상자'를 제작하는데 사용됐다.

'희망상자'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명절 물품으로 구성된 기부 박스로, 과일과 말린 생선, 라면, 유과, 찹쌀 및 잡곡, 생필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골든블루 임직원이 포함된 자원봉사단은 '희망상자'를 포장하고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총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희망상자'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골든블루 김동욱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들이 마음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희망상자'를 제작했다"며 "이번 '희망상자' 전달을 발판 삼아 ㈜골든블루는 나눔을 생활화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장년층 경영자 현황 및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 고령 기업인 비중 전국 최고인 부산, 가업승계 발등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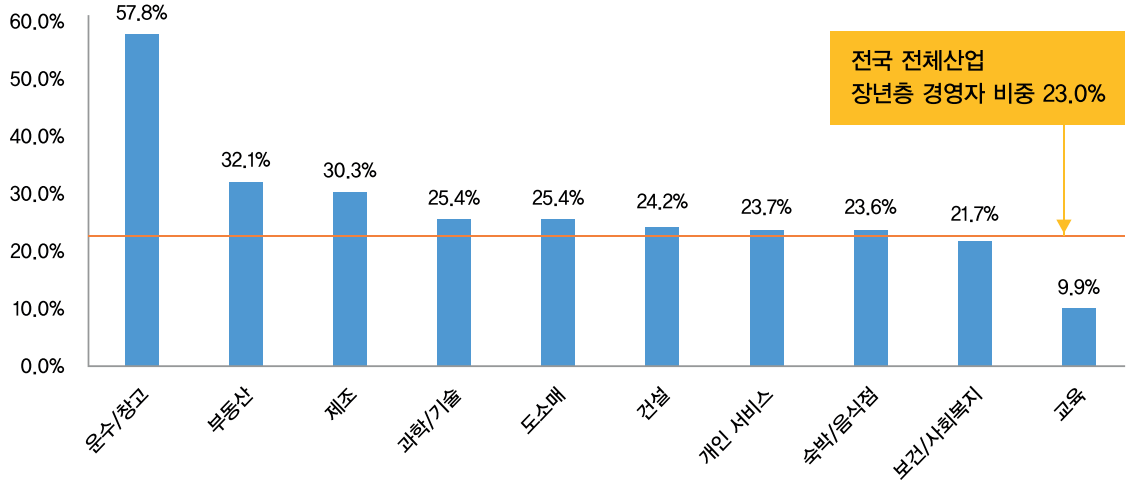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서영훈**

부산의 만 60세 이상 장년층 기업인 비중이 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업승계를 눈앞에 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영속성 확보와 기업가치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만 60세 이상 장년층 경영자 비중은 27.4%로 서울 24.1%, 울산 22.3%, 대전 22.1%, 대구 21.9%, 인천 21.8%, 광주 20.2% 등 전국 7대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4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미만 중년층 경영자 비중은 각각 14.1%, 58.5%로 비교 도시 중 가장 낮았다.

산업별로는 부산 전체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대표 산업군 중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한 8개 산업에서 장년층 경영자 비중이 전국 전체산업의 장년층 경영자 비중 23.0%를 상회했다.

| 주요 산업별 장년층 경영자 사업체수 비중 |



장년층 경영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으로 무려 57.8%가 60세 이상 장년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반 산업인 제조업 역시 장년층 경영자 비중이 30.3%로 광주(20.9%), 대전(24.5%), 울산(24.8%), 대구(25.0%), 인천 (25.7%), 서울(26.4%)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해 높았고 유일하게 30%를 넘었다.

이처럼 부산에 장년층 기업인이 유독 많은 것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고령화율로 인해 중년에서 장년층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산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8%(2021년 6월)로 금년 내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은 매년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1만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감소는 신규 창업자를 키워낼 스타트업 기반의 취약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장년층 기업인 비중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세 이상 장년층 경영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92.4%가 가업승계를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전국 조사 결과인 76.2% 보다도 15%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가업승계의 목적에 대해서는 경영 노하우, 기술 등의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추구가 80.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가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경영과 기술의 승계를 통한 기업 가치 보존 차원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응답 업체 중 현재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은 54.7%였으며, 장기 검토 중인 기업도 35.8%에 달했다. 한편 승계를 이미 끝낸 기업은 9.4%에 불과한 가운데 승계대상은 자녀가 81.1%로 대부분이었고 승계 방식은 '사전 증여 후 상속'이 65.4%로 가장 높았다. 승계 시점은 평균 74세 정도로 확인되었고 승계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10년 이상이 39.6%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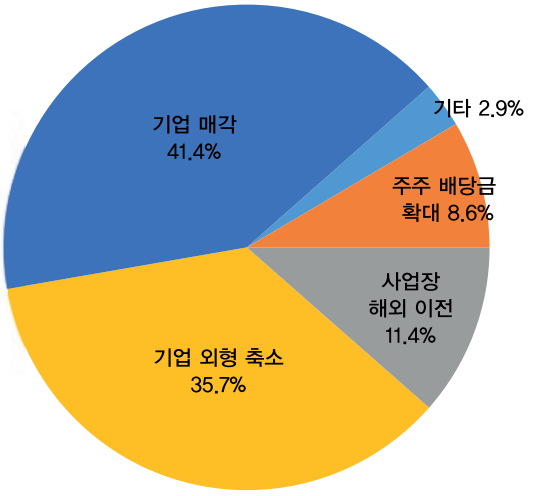
이처럼 가업승계에 대해 경영계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세부담과 관련 제도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을 물은 결과에 승계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꼽은 기업이 58.2%로 가장 많았다. 국내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내에서 55%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 주주의 경우 주식가격의 20%를 과세 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실질 세율은 일본보다도 높다는 것이 지역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상속공제제도 활용에 있어서도 사후 요건 이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자산 5천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경영유지 기간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사후관리 7년 동안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후 요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경영 현실을 외면한 독소조항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가업승계가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는 '기업을 매각하겠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기업 외형을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35.7%였다. 이외에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응답도 11.4%에 달해 지역기업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일자리공급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가업승계 대안 |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는 "가업승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60세 이상 장년층 기업인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에 위험요소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청년기업인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세 인센티브를 손질하여 대기업 지방 이전을 장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20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 부산기업의 위상 추락 심각, 전국매출 100위권 내 기업 전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노희태**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전국적 위상추락이 심상치 않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역 대표기업들의 첨단 신성장산업 비중이 현저히 낮아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은 29개사로 2019년 34개사와 비교해서는 새로 진입한 기업은 5개사에 그친 반면 탈락한 기업은 무려 10개사에 달했다.

특히 2002년 매출액 1000대기업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30개 밑으로 떨어졌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55개사와 비교하면 불과 10여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여 지역기업의 위상추락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산 순위 | | 전국 순위 | | 기업명 | 매출액 | |
|---|---|---|---|---|---|---|
| 2020 | 2019 | 2020 | 2019 | | 2020 | 2019 |
| 1 | 1 | 118 ▼ | 94 | 르노삼성자동차(주) | 3,400,759 | 4,677,710 |
| 2 | 2 | 161 ▼ | 155 | (주)부산은행 | 2,564,859 | 2,744,532 |
| 3 | 3 | 229 ▲ | 234 | (주)한진중공업 | 1,694,634 | 1,609,530 |
| 4 | 10 | 234 ▲ | 373 | 하이투자증권(주) | 1,661,268 | 1,031,817 |
| 5 | 4 | 256 ▼ | 246 | (주)서원유통 | 1,508,922 | 1,548,836 |
| 6 | 5 | 286 ▼ | 271 | (주)창신아이엔씨 | 1,372,429 | 1,428,447 |
| 7 | 6 | 331 ▼ | 310 | (주)성우하이텍 | 1,152,011 | 1,218,068 |
| 8 | 8 | 345 ▲ | 355 | 디지비생명보험(주) | 1,097,865 | 1,097,498 |
| 9 | 14 | 372 ▲ | 441 | 에스엠상선(주) | 1,024,947 | 842,104 |
| 10 | 15 | 392 ▲ | 463 | 현대글로벌서비스(주) | 960,753 | 789,472 |
| 11 | 9 | 411 ▼ | 368 | (주)화승인더스트리 | 926,399 | 1,045,321 |
| 12 | 11 | 412 ▼ | 388 | (주)부산도시가스 | 922,073 | 972,789 |
| 13 | 16 | 418 ▲ | 465 | (주)복산나이스 | 902,666 | 785,094 |
| 14 | 12 | 423 ▼ | 414 | S&T모티브(주) | 877,370 | 889,996 |
| 15 | 13 | 461 ▼ | 419 | 대한제강(주) | 770,678 | 883,279 |
| 16 | 19 | 468 ▲ | 564 | 비엔케이캐피탈(주) | 760,236 | 649,836 |
| 17 | 17 | 535 ▼ | 496 | 엘티삼보(주) | 659,640 | 731,657 |
| 18 | 20 | 559 ▲ | 567 | (주)동원개발 | 630,616 | 642,629 |
| 19 | 18 | 588 ▼ | 555 | 세운철강(주) | 603,864 | 657,170 |
| 20 | 23 | 621 ▲ | 640 | 세방(주) | 577,262 | 570,753 |
| 21 | 26 | 637 ▲ | 823 | (주)동성모터스 | 564,860 | 434,960 |
| 22 | 31 | 721 ▲ | 911 | (주)한국거래소 | 496,890 | 386,172 |
| 23 | ... | 780 ▲ | ... | 두동도시개발(주) | 458,248 | 61,814 |
| 24 | 24 | 807 ▼ | 713 | 고려제강(주) | 437,063 | 495,658 |
| 25 | 27 | 851 ▼ | 828 | 인터지스(주) | 418,388 | 431,257 |
| 26 | ... | 914 ▲ | ... | (주)동성화인텍 | 387,129 | 238,407 |
| 27 | ... | 937 ▲ | ... | 태광후지킨(주) | 377,492 | 222,747 |
| 28 | ... | 975 ▲ | ... | 협성르네상스(주) | 362,882 | 24,546 |
| 29 | ... | 990 ▲ | ... | (주)파나시아 | 355,866 | 328,4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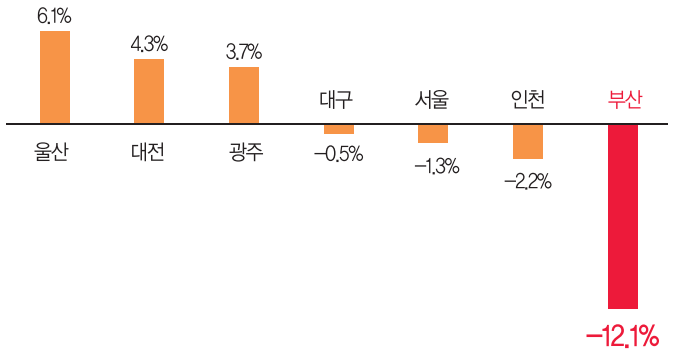
※ 2020년도 매출액 기준
※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CCI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역 내 부동의 매출 1위 기업으로 지난 해(94위) 유일하게 전국매출 100대기업 내에 자리해 온 르노삼성차마저 XM3 수출물량 추가 확보 실패와 임단협 갈등 장기화 등의 악재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전국매출 순위 118위로 밀려났다. 이로써 전국 매출 순위 100대 기업 명단에 부산은 단 한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지역경제계에 전해질 심리적인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9곳 기업의 총매출액도 27조 9,280억으로 2019년 34곳 기업의 총매출액 31조 7,845억 대비 무려 12.1%나 감소해 전국 대도시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국 1000대 기업 전체매출 비중 역시 1.2%에 그쳤으며, 이는 서울(1,449조 978억)의 1.9%, 인천(56조 1,597억)의 50%, 경남(46조 2,163억)의 60% 수준으로 대한민국 제2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산 기업의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2020년 주요도시 1000대 기업 매출액 2019년 대비 증감 |




부산 대표기업들의 외형이 이처럼 눈에 띄게 줄어든 데는 2019년 대비 업체수가 준 영향도 있지만 29곳 기업들이 대체로 지난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선, 자동차, 철강, 신발·고무 등 경기 부진 업종이 많았기 때문이다.

2020년 1000대 기업에서 탈락한 기업을 살펴보면, 부산롯데호텔을 비롯하여 동아지질, 태웅, 화승네트웍스 등 10개 기업이다. 특히 부산롯데호텔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면세부문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료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0대 기업에서 탈락했다.

신규 진입 기업은 지난해 친환경 이슈로 매출액이 증가한 파나시아(선박용 탈황장비)와 동성화인텍(선박용 LNG 연료탱크), 태광후지킨(수소탱크용 밸브) 등 제조업 3곳과 분양 실적이 반영된 두동도시개발과 협성르네상스 2곳뿐이다.

| 신규진입 및 잔류실패 부산기업 현황 |

| 구분 | 기업명 | 비고 |
|---|---|---|
| 신규진입 | 두동도시개발(주), (주)동성화인텍, 태광후지킨(주), 협성르네상스(주), (주)파나시아 | 5개체 |
| 잔류실패 | (주)엘시티피에프브이, 와이케이스틸(주), 에어부산(주), (주)부산롯데호텔, 엠에스에이(주), (주)아이엠티인코퍼레이션, 한국특수형강(주), (주)동아지질, (주)태웅, (주)화승네트웍스 | 10개체 |

부산 매출순위 10위권 내 지역 대표기업 중 2019년과 비교해 전국 매출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한진중공업(234위→229위), 하이투자증권(373위→234위), 디지비생명보험(355위→345위), 에스엠상선(441위→372위), 현대글로벌서비스(463→392위) 등 이었고, 하락한 기업은 르노삼성차(94위→118위) 부산은행(155위→161위), 창신아이엔씨(271위→286위), 서원유통(246위→256위), 성우하이텍(310위→331위) 등이다.

|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상위 10개사 순위 |

| 기업명 | 부산순위 | 전국순위 | 매출액(억원) |
|---|---|---|---|
| 르노삼성자동차(주) | 1 | 94 | 4조 6,777 |
| (주)부산은행 | 2 | 155 | 2조 7,445 |
| (주)한진중공업 | 3 | 234 | 1조 6,095 |
| (주)서원유통 | 4 | 246 | 1조 5,488 |
| (주)창신아이엔씨 | 5 | 271 | 1조 4,284 |
| (주)성우하이텍 | 6 | 310 | 1조 2,181 |
| (주)엘시티피에프브이 | 7 | 333 | 1조 1,736 |
| 디지비생명보험(주) | 8 | 355 | 1조 975 |
| (주)화승인더스트리 | 9 | 368 | 1조 453 |
| 하이투자증권(주) | 10 | 373 | 1조 318 |

또한 전국 매출 1000대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도 여전했다. 2020년 매출 1000대 기업 중 743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매출순위 100위 내 기업도 서울 78곳 등 91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수도권 일극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는 "지역 기업의 매출 규모와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의 추진이 시급하며, 아울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 올려 줄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 지역기업 'ESG 경영' 적용까지 갈길 멀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서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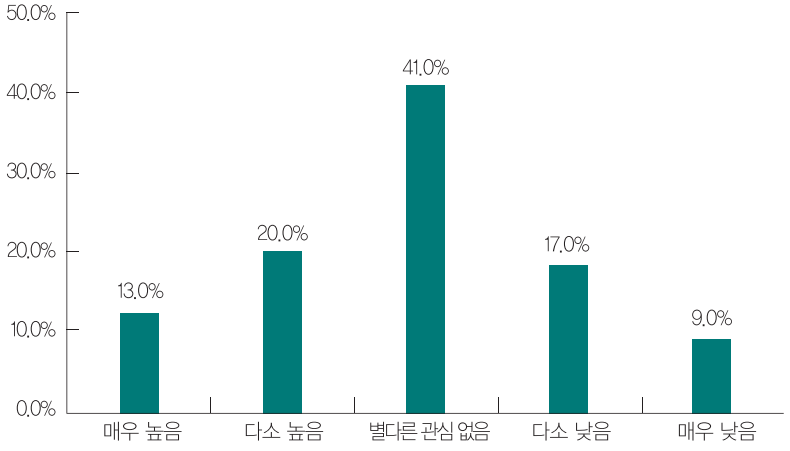
'ESG 경영'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모호한 개념과 비용부담 등으로 지역 기업이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재무적 성과만으로 기업을 평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접목하여 기업 가치와 투자를 결정하는 트랜드가 확산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 10곳 중 7곳 정도는 'ESG 경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관심 자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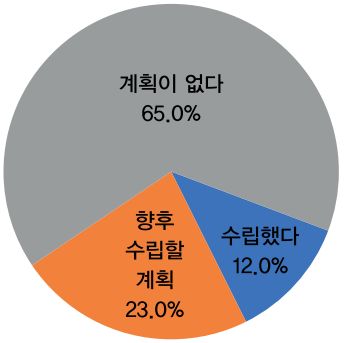
향후 'ESG 경영'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조사기업 65%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3%였고, 이미 수립한 기업은 12%에 불과했다. 'ESG 경영'에 대한 지역기업의 현실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 ESG 경영 관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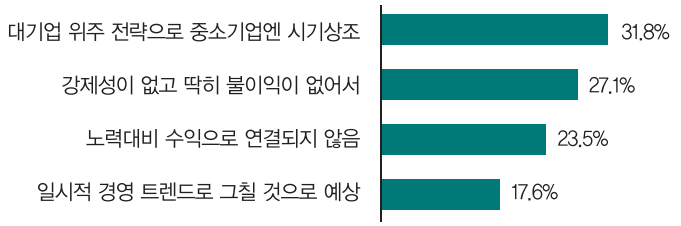

BCCI

| ESG 경영전략 수립현황 |




실제 'ESG 경영'에 대한 전략 수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중소기업에는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기업이 3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강제성이 없고 현재로서는 큰 불이익이 없다'가 27.1%, '투자대비 수익이 명확치 않다'가 23.5%였고, 일시적인 경영 트랜드로 그칠 것으로 보는 기업도 17.6%나 되었다.

| ESG 경영전략 수립계획 없는 이유 |




조사 대상 기업이 대체로 지역 상장사나 매출 규모가 1000억 이상인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이처럼 낮은 데는 아직까지는 이들 기업 대다수가 'ESG 경영'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공시의무와 관계없이 원청 업체로부터 ESG에 대한 도입 요구가 강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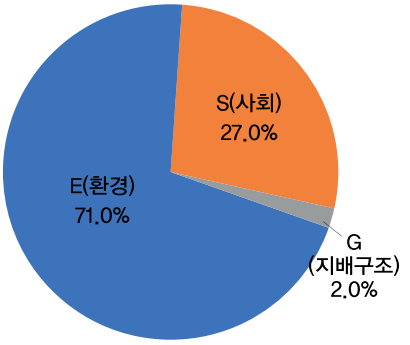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ESG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 40개사 중 B+ 이상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BNK금융지주,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엔터프라이즈, 동일고무벨트, SNT 모티브, 세방, 인터지스 등 7곳 이었으며, 이중 BNK금융지주만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나머지 33개사 중 13곳은 B등급이었고, 20개사는 C 이하의 취약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을 받은 40곳 중 절반인 20개사가 취약등급인 것이다.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이런 미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장사들은 ESG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는 41.8%가 ESG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비상장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26.3%에 그쳤다. 상장사의 관심이 높은 것은 ESG와 같은 각종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가 최근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ESG 경영'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의 37.1%는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25.7%는 필요시 TF 형태로 운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37.1%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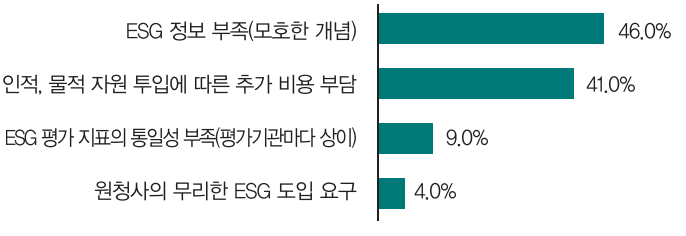
지역 기업은 ESG 중에서도 환경부문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조사기업의 71%가 환경을 관심 분야로 꼽았으며, 사회부문은 27.0%, 지배구조부문은 2.0%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주력 수출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 ESG 관심분야 |




지역 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조사기업의 87%가 지적한 ESG에 대한 정보부족과 비용부담이었다. 그 외 '평가기관마다 상이한 지표'(9.0%), '원청기업으로 부터의 ESG도입 강요'(4.0%) 순으로 나타났다.

| ESG 경영 도입 관련 주요 애로사항 |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는 "최근 블랙록,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의 척도로 활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탄소국경세 등 ESG와 관련한 글로벌 수출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역 기업들도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에 대한 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상의 인포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 | EU가 탄소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

지난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 패키지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입과 차량의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이다. EU 집행위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인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EU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상응하는 금액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집행위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2035년부터 등록되는 신규 차량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이다.

회원국 의견수렴과 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기업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이 대세인 것이 명화해진 만큼 기업들도 정책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언급된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 패키지는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http://ec.europa.eu/info/index_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수출기업을 위한 원자재, 물류 지원 받으세요 |

최근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원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 채산성 악화 등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와 정부 정책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국제유가는 올해 1월 50달러 대에서 7월 7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초 대비 국제유가가 50%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두바이유 기준). 더북이 최근 원유 생산량에 대한 산유국 간 이견으로 OPEC+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물류비용 역시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7월2일 기준으로 3,905를 기록하여, 집계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산성 또한 악화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수출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최근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판가에 모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1곳(9.2%)에 불과했다. 원가를 판가에 부분 반영하는 회사는 68.5% 였고,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회사도 12.2%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관련 지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 원유수급 및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석유공사를 통해 유사시 방출 가능한 비축유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철근의 가격상승 및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공기연장과 공사비 조정 지침을 하달하고, 철근 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24시간 통관 지원, 수입검사 최소화 등을 통해 철근 등 원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물류 관련 정부지원**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중견 화주에 운임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선적공간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물류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전담반(TF)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수출 물류정책지원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www.ielsc.or.kr) 홈페이지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 외 관련 문의는 대한상의 신재생에너지정책실 RE100 운영팀 ☏052-920-0902~0903으로 하면 된다.

## | 무역기술장벽(TBT)·기술규제 애로해결 더 쉬워집니다 |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 nical Barriers to Trade)은 최근 3년간 전세계적으로 3천 건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며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 다변화 대상인 신남방지역(인도+ASEAN, 11개국)의 신규 TBT통보는 1,866건(2020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을 상회하고 있고, 무역기술장벽은 환경, 디지털 분야 등에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8월5일, 정부는 9개 시책을 담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규제 개선의 현장체감을 높이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년 이상된 인증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에 맞춰

기술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그린관련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강화한다. TBT와 관련해서도 우리 수출 10대국가와의 협상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도 늘릴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TBT와 국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기술규제 대응 지원 데스크'를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대한상의는 기술관련 기관과 연계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수출국 TBT애로 해소 지원 ▲수출국 인증절차나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해외 기술규제 동향 및 원문번역 ▲국내 기술규제 애로 사항 해소 등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신청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기술규제대응 지원데스크(02-6050-3685/3686),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정책과(043-870-5524)로 문의하면 된다.

## | 구글 인앱결제가 뭐길래? |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도대체 인앱결제(in-APP Purchase)가 뭐길래 관련 업계와 여의도를 이리 뒤흔들어 놨을까?

인앱결제란 구글·애플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자사가 만든 결제시스템으로 자사의 앱 장터 안에서 유료 앱 ·콘텐츠를 사고 팔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 규모가 작은 앱마켓이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구글의 '구글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글로벌 시장의 90%를 점하는 빅테크 앱마켓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구글은 게임 앱을 위주로 앱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려왔는데 이를 사진과 영상, 교육, 웹툰 등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이나 애플은 인앱결제 의무화의 이유를 "불투명하고 영세한 외부 결제수단 사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까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도적 저지망을 펼치고 나온 것은 인앱결제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자 구글은 일단 한걸음 물러났다. 오는 10월부터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하려던 것을 내년 3월로 6개월 연기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 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한 셈이다. 모든 앱에 적용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앱 개발사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별도로 연기신청을 하면 구글이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의 앱 개발사 및 온라인콘텐츠 제공 기업들은 구글이나 애플같은 빌테크의 제도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원스토어나 삼성스토어 등 대안 앱 마켓 사용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앱결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납부한 관세가 없어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간이정액환급제도) |

관세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하면 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는 대물 소비세로서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인데 수출물품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즉, 관세를 납부한 수입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것인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 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이고 제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원재료 수입여부를 불문하고 간이정액환급 적용 기준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금액 FOB 10,000원 당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준다. 화급금액은 HS code 별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전년도 평균 환급금액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매년 책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로 문의하면 된다.

## | IPCC 말하는 기후변화대응과 의미 |

UN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이른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최근 6차 보고서(Assessment Report, AR)를 발간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2040년 이전에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발간한 5차 보고서는 2100년으로 예상했는데 무려 60년을 앞당겼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과학적분석에 더해 사회경제적 분석까지 적용해 신뢰성을 높였으며 각국 정부의 기후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상향조정했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8월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설정한 수치(2017년 대비 24.4%)보다 10%포인트 높인 35%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구체적 감축목표는 오는 10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IPCC 보고서는 미래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누적 CO2 배출량을 제한하고, 최소한 탄소중립(net zero CO2 emissions)에 도달하고,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강력한 감축 필요, △강력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메탄 배출 감축은 에어로졸 오염 감소로 인한 온난화 효과를 억제하고 대기질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IPCC 6차 보고서는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와 2023년 시행할 파리협정의 이행점검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영향력이 주목된다. IPCC 상세내용은 기상청 보도자료(2021.8.9일자)를 참고하면 된다.

# 대한상의 브리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우철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업상속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 ● '증가방식의 순자산세' 도입 검토

### ●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 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여러모로 독특한 요소가 많다. 세계적으로 높은 고율의 과세,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유산세 방식, 그리고 중소기업에 국한된 가업승계공제 등이 그러하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는 생을 마감한 개인이 일평생 모아 놓은 재산이 상당히 많을 때, 세금을 징벌적 수준에 가깝게 과세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재산이 많더라도 대기업 오너가 아니고 중소기업 소유주라면, 큰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대재산가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까지의 상속자산에 대해서는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한다. 매우 강화된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면서도, 상속재산의 과다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과세상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특징이다. 격차 해소를 제일로 내세우는 상속세가 실제로는 공평과세에 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유별나게 강화된, 그러나 동시에 차별화된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나 구체적인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래의 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가 현재와 같은 틀로 고착화된 과정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나, 여기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란 존재하지 않고 다분히 경로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처음에 어떤 단순한 정치적 계기로 현재의 상속세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속세 논란을 생각하면, 다소 허무한 설명이다.

그러나 현 제도의 이러한 태생적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 제도 혁신의 첫걸음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상속세는 금수저세?

물려받는 재산이 많다는 것은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과세되는 세금은 요즘 말로 금수저세에 해당한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선대의 자산 불평등이 후대에까지 계속된다면, 이를 기꺼이 지지해 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상속재산에 고율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기저에는 금수저에는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이 같은 정서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어, 소수 재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도 상속세를 금수저세로 인식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가 기업의 대주주나 많은 자산을 소유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나 과세되고 대부분의 사람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생각에서, 이 세금에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사실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과거 상속세 이슈에 대해서는 국책연구원에서 이렇다 할 보고서도 거의 내놓지 않았고, 주무부처인 세제실도 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정도의 원론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기치 아래 현재 수준의 상속세 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적 동기와 명분을 걸고 특정 정부에서 크게 강화된 세제가 형식적인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와 더불어 실제 과세 과정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오랜 기간 유지돼 오늘에 이른 것이 지금의 상속세 제도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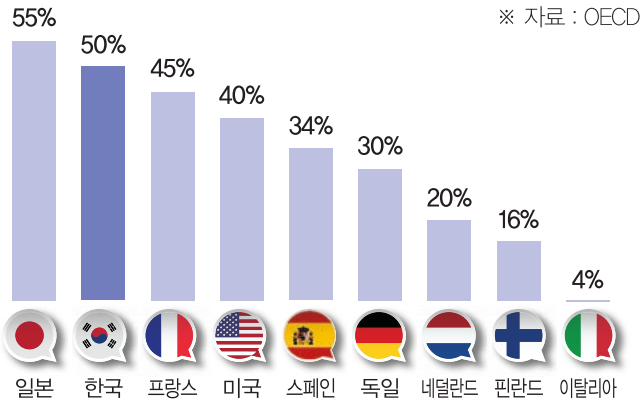
[ 상속자산 규모에 따른 상속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000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9,0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2억 4,00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50% |
| 30억원 초과 | 10억 4,000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 자료 : 기획재정부]

[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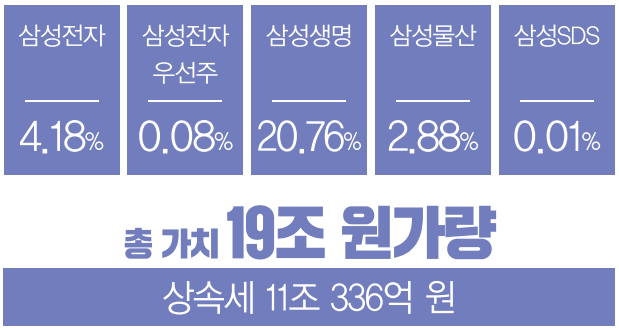

## ● 가업승계공제제도의 허(虛)와 실(實)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관계된 세금으로 치부된 상속세의 현실적 문제나 부작용은 거의 방치된 채, 20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다. 그 사이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이 크게 바뀐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통 제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 이전 기업이 늘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고도 성장의 주역이었던 산업화 1세대 기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상당수 업종에서 그들이 평생을 키웠던 기업들은 사양 산업화되었고, 그들의 퇴장 이후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기름밥 먹기를 거부하고, 지분 매각으로 얻은 현금 자산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세태가 두드러졌다. 기업상속에 대해 가업승계공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이다. 최초 법 개정 이후 현실에서 가업승계 공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업경영의 순조로운 승계가 이루어지기에는 공제 충족에 제약이 너무 많았다.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확대되었고 공제수준도 높아졌으며, 여러 요건도 다소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공제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기업들의 수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도 활용에서 기업들이 실제 겪게 되는 고충을 줄이고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가업승계공제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여기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바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를 확대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확대는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나, 대기업까지 공제를 확대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 이 의제는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민감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단순히 기업상속 과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제도 전반, 나아가 존폐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견기업의 상속공제에 관한 정책은 단순히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공방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가업승계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업승계공제 대상기업의 규모 확대는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 사회에 점차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의 징조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수준이 언론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상속세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대한 관심과 함께 문제 의식을 공유

[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 자료 : YTN

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과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에 내재된 결함이 자연스레 부각된 것이다. 현행 상속세 제도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상속세 과세의 구체적인 사항에 무관심했던 우리 국민 다수가 올 초부터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강화 입장의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행정부가 모두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2000년 법 개정 이후 20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화된 상속세 제도가 드디어 국민적 관심 속에 주요 정책으로 이슈화되고, 제대로 된 사회적 선택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 임기 말에 중대한 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올해 안에 상속세 개정이 입법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상속세 개편은 주요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실제 상속세 개편 작업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다음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 ● 상속세제 개선의 방법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들은 크게 근본적인 개편과 부분적인 개편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 (1) 근본적 개편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식이란 상속세의 폐지나 대체과세 도입을 포함한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상속세를 통한 자산불평등 완화나 재분배 촉진은 형식적인 명분의 성격이 강하며, 현실에서 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전체 세수나 GDP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세수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상속세 세수의 절대적 규모와 협소한 과세 대상이라는 한계로 인해,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화된 상속세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의 재분배 효과는 OECD 하위 수준이라는 점이 단적인 증거다. 우리보다 앞서 상속세 제도를 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한 나라들의 사례는 이러한 의미에 근본적인 제도 개편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더해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망 이전의 생전 시기에 재산증액분에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저율로 과세하는 '증가방식의 순자산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은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해 일시 과세하는 현 제도보다 소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낮아진 세 부담도 여러 해에 걸쳐 분납하는 것이기에, 납세자 입장에서 합리적 대안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납세자 생전에 재산이 증가할 때마다 과세가 이루어지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 증여·상속을 원천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의 소유 지분은 현 세대 오너는 물론 지분을 상속한 다음 세대에서도 매각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여러 대에 걸쳐 핵심적인 상속기업의 소유 지분은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업승계경영의 원칙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는 제대로 된 과세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증가방식의 순자산세' 또는 간단히 줄여 '순자산증가세'는 지분 매각과 관계없이 지분가치 증가에 대해 과세되기에, 양도소득과세 전환 방식의 한계를 적절히 극복하는 장점도 있다.

생전 지분의 양도소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연히 그동안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된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해주면 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분할 원천징수하는 순자산증가세에서 얻는 장점이 더 크고, 나아가 상속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서 특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미국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되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두 차례 위기 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유럽 국가들도 부유세 도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부유세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참가한 순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비해, '순자산증가세'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부유세 일종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추세에 적절히 부합하는 동시에, 본격적 부유세에 유보적일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대안 과세가 될 수 있다.

### (2) 부분적 개편

부분적인 상속세 개편 방식은 근본적인 개편과 달리 현행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율 체계와 공제 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것을 뜻한다. 50%에 이르는 과도한 최고세율은 물론, 기업상속에 대해 프리미엄 대신 징벌적 과세를 가하는 60% 할증과세 제도는 최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할증과세는 폐지가 타당하고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인 30% 중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업승계공제의 세부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것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제도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지속적 감독에 수반되는 과도한 세무행정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업승계공제 대상은 적어도 중견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경영 안정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고 경제 활성화 기조에도 부합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일 목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 증가라는 전제조건을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승계공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건 사투에 직면한 주요 기업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상속세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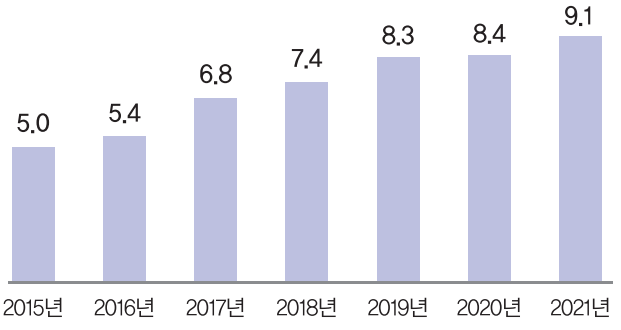
## ● 눈 앞의 상속세 세수 확대 vs. 국가경제규모 발전에 따른 전체적 세수 확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확대 경쟁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국내외 모든 기업들의 운명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더불어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 현 시점에서 국내 시장의 독과점 구조도 이제는 피 말리는 경쟁을 통과해야 유지가능하다. 이러한 경제 및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상속에 대해 20년 전의 구시대적 발상에 얽매여 낡은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전체 규모에 비해 한 줌에 불과한 상속세 세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하게 함으로써 고용과 투자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세수 증가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상속세의 이중적인 성격에서 오는 정책적 혼란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상속세를 '금수저세'로 인식하여 공평과세를 떠올렸다면, 앞으로는 상속세가 '부자사망세(death tax on the super rich)에 다름 아니며 효율과 공평과세 모두에 장애물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면적인 형평성 논리로 무장한 정치적 구호와 그에 따른 제도는 정치인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지지를 쉽게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지 의회 입법화만으로 정치적 소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 실패의 원인이 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진정한 제도 발전은 국민의 냉정한 이성과 현실적 판단에서만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수반되는 어려운 정책이 현실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보장한다. 상속세 과세 명분에서 얻는 당장의 정서적 만족감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촉진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는 분배 구조 발전에 우리와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상속·증여세 추이 ]

(단위 : 조 원)




※ 추경, 2021년은 예산안 기준
※ 자료 : 기획재정부

# 경영상담

## Management Consultation

**안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순원**
Tel : 051-920-5000 Fax : 051-802-8448 E-mail : schoi@akcpa.co.kr

### 확정 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시기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전지 및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시공사인 A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마지막 잔금은 계약에 따라 개발행위 준공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함

● 한편, A사 담당자가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사용전 검사 확인일('19.6.26.)에 발급하지 않고 준공일('19.12.24.)에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도 발급일과 같은 날('19.12.24.)로 기재함
- 질의법인은 '19.2기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 '19.1기 확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음

☞ 사업자가 2019.6.26.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2019.12.24. 지연수취(작성 연월일도 2019.12.24.로 기재)

▶ 질의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하는 경우로서

① 작성 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② 매입세액 불공제 될 경우 작성 연월일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단,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통지 등을 받은 경우 등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법령부가-1202, 2021.06.10. )

# 노무상담

## Labor Consultation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주재현**
Tel : 051-464-0306 E-mail : jooxoo@hanmail.net

**관공서 공휴일도 일반 업체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휴일이 일요일이면 대체공휴일까지 부여해야 한다는데 대체공휴일 적용여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공휴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같은 규정 제2조 각호중 제2호, 제4호, 제7호, 제9호를 제외한, 제3호(1월1일), 제6호(부처님오신날), 제8호(현충일), 제10호(기독탄신일), 제10의2호(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의 휴일은 이 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올해 대체공휴일은 ① 광복절(8월15일) 다음날인 8월 16일(월요일), ② 개천절(10월 3일) 다음날인 10월 4일(월요일), ③ 한글날(10월 9일) 다다음날이자 최초 비공휴일인 10월 11일(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새로운 대체공휴일이 생긴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상담

## Patent Consultation

**옥특허법인** 대표변리사 **김영옥**
Tel : 051-862-6622 E-mail : ok@okpat.co.kr

미국에는 필요한 경우 신속한 특허출원을 위하여 연구논문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임시출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출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기존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여 2020.3.30.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발명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기업들 간에는 유사한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특허출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특허를 출원할 때 법에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논문 등의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출원을 하면서 기존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다시 출원하여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로 출원일을 당겨서 인정받거나, 아니면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정식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명세서 제출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국내에서도 박사논문이나 학사논문, 연구기관의 기술보고서 자료 등 연구결과를 바로 출원할 수 있게 되어 산업계에서의 특허권 획득이 그만큼 활발화되고 권리보호의 충실성도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관세상담

## Tariff Consultation

**부산상공회의소** 상주 관세사 **김유진**
Tel : 051-990-7125 E-mail : yjin4277@naver.com

베트남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서명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비특혜원산지증명서와 FTA원산지증명서 중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국가를 증명해주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관세 특혜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원산지증명서 종류

1. 특혜 원산지증명서 :
   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국 내에서 관세특혜 목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예) FTA, GSP, APTA 원산지증명서 등

2.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예) 일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체결국가로 FTA원산지증명서와 일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동시에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수출업체는 수입자에게 요청한 원산지증명서가 어떤 원산지증명서인지 확인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1. FTA 원산지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 원산지소명서
   - 소요자재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 원재료 거래증빙서류 등

2. 일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부산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FTA 및 수출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무료 상담 및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완전한 경제회복

### 더 빠르고 강한 회복 (1)

1

▶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등 **2차 추경 편성**
*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② 소상공인 피해지원, ③ 상생소비 지원금

– 신속한 **백신 확보·구매·접종** 지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마련

▶ 내수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농수산, 체육, 스포츠 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전분기 평균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 캐쉬백)

– **코리아세일페스타, 트래블 버블** 추진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5개지역) 연장 운영 (~'23.5월)
*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 **지역균형뉴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속 추진

### 더 빠르고 강한 회복 (2)

2

▶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제정 및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이행

– 반도체, 백신, 배터리 **3대분야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

▶ 수출 6천억불 돌파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마련,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 달성

– 수출 기업 보험·보증 등 **수출금융 125조원 집중 공급**

▶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기주택 공급 확대** 대책 신속추진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 디딤돌 대출 한도 인상(2→2.5억) 등
* (현행) 공공택지 15% / 민간택지 7% → (개선) 공공택지 20% / 민간택지 10%

## 3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피해가 컸던 분야(신산업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장 법제화

– **폐업, 재도전시** 금융·세제지원 강화

–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 추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산물·축산물 등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 마련

– 주거·통신·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지원** 지속

## 4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 **일자리·주거·자산형성·문화생활** 분야에서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분에서의 **격차해소 중점** 지원

▶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전국민 고용보험·한국형 상병수당** 차질없이 이행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1.10월부터 **전면 폐지**

▶ 상생·연대·공정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착한 기부자** 및 **우수기부금 단체 포상** 실시

– 기술탈취 피해 지원 위한 **기술보호 정책 보험** 도입

# 경제구조 대전환

## 새 성장동력 확보 (1)

5

▶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투자 '22년 22.5조원 집행 (뉴딜 10대과제 중심)
-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조속 마무리
- 국민참여 뉴딜 펀드 추가조성 및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범위 확대

▶ 미래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BIG 3 산업(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 재정·세제지원
- D.N.A 생태계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 및 혁신 서비스 제공

▶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 수립
- 소부장 핵심품목(338+α개), 미래선도품목(65개) 중점지원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등 신서비스 혁신성과 창출 노력

## 새 성장동력 확보 (2)

6

▶ 제2벤처붐 시대 지속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 스톡옵션 개편, 벤처기업법 전면 재정비 등 벤처생태계 보완방안 수립
- 코너스톤 인베스터 도입, 스케일업 펀드 규모 확충
- 조인트 벤처 설립 및 엑설러레이팅 지원 강화

▶ 핵심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SW분야 5년간 총 41.3만명+α 규모로 양성 추진
-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 추진
- 기업 주도 신산업 우수 훈련모델 확산 추진

##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7

### ▶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응하겠습니다.

– 2050 NET-ZERO 추진 본격화

– K-ESG 가이드라인 마련, K-녹색분류체계 수립

*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

### ▶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사업재편 파트너십, 산업혁신·재건 프로그램 구축

– M&A 모태펀드 규모 확대(1→2천억원),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보강

### ▶ 인구리스크·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3대 인구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핵심과제별 대책 발표

– 저출산 극복 5대 핵심패키지 지원방안 구체화

*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 휴직시 최대 300만원 등), 영아수당 신설(단계적으로 '25년 50만원 인상)

임신출산 축하꾸러미 개편(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 출산시 200만원) 등

### ▶ 노동·재정·공공 등 부문별 구조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 임금피크제 관리 강화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 2021 세법개정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일자리 회복 지원
- 내수 활성화·기업환경 개선

###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 강화
- 상생협력기반 강화
- 서민·취약계층 지원
- 과세형평 제고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과세기반 정비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01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

| 공제율 | | 현행 | | | 개정 | | |
|---|---|---|---|---|---|---|---|
| | | 대 | 중견 | 중소 | 대 | 중견 | 중소 |
| R&D 비용(%) | 일반 | 2 | 8 | 25 | 2 | 8 | 25 |
| |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 30~40 | 20~30 | | 30~40 |
| | 국가전략기술 | (신설) | | | 30~40 | | 40~50 |

| 공제율 | | 현행 | | | | 개정 | | | |
|---|---|---|---|---|---|---|---|---|---|
| | | 당기분 | | | 증가분 | 당기분 | | | 증가분 |
| | | 대 | 중견 | 중소 | | 대 | 중견 | 중소 | |
| 시설 투자(%) | 일반 | 1 | 3 | 10 | 3 | 1 | 3 | 10 | 3 |
|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3 | 3 | 5 | 12 | 3 |
| | 국가전략기술 | (신설) | | | | 6 | 8 | 16 | 4 |

### 02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 < 수요 인센티브 > | | < 공급 인센티브 > |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신설) | · 중소·중견 취득 지식재산(IP)을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자산에 추가 | · 중소·중견 기술이전 소득 50% 세액감면, 일몰(~'21.12.31) | · 2년 연장(~'23.12.31) |
| | | ·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 25% 세액감면, 일몰(~'21.12.31) | · 중견기업까지 포함, 2년 연장(~'23.12.31) |

##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01 창업·벤처지원 강화

| | 현행 | 개정 |
|---|---|---|
|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대상 |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일몰(~'21.12.31) |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3년 연장(~'24.12.31)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 | 벤처기업 임직원 대상, 일몰(~'21.12.31) |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 3년 연장(~'24.12.31) |

### 02 수도권 外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21~'22년) 및 연장

| | | 현행 | 개정 | |
|---|---|---|---|---|
| 청년·장애인 등 1인당 공제금액 (수도권 外) | 중소(3년간) | 1,200만원 | ▸ 1,300만원 | + 100만원 |
| | 중견(3년간) | 800만원 | ▸ 900만원 | |
| | 대기업(2년간) | 400만원 | ▸ 500만원 | |
| 적용기한 | | 일몰(~'21.12.31) | ▸ 3년 연장(~'24.12.31) | |

### 03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경력단절 인정기간 : 퇴직 후 3년이상→2년이상)

## 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01 유턴기업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요건완화 및 연장

| | 현행 | 개정 |
|---|---|---|
| 요건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 2년 내(+1년) 완료 |
| 적용기한 | 일몰(~'21.12.31) | 3년 연장(~'24.12.31) |

### 02 사업재편 과세이연(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 현행 | 개정 |
|---|---|---|
| 특례 적용대상 |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 상환 시 | 자산매각 후 투자 시에도 적용 |
|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 3년 | 공동 사업재편 시 1년으로 축소 |

### 03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 강화

##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0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 현 행 | 개 정 |
|---|---|---|
| 공제요건 | ① 어음결제금액 미증가<br>② 현금성결제비율 미감소 | ① 어음결제비율 미증가<br>② 삭제 |
| 공제율 | · 15일 이내 지급: 0.2%<br>· 16~60일 지급: 0.1% | · 15일 이내 지급: 0.5%(+0.3%p)<br>· 16~30일 지급: 0.3%(+0.2%p)<br>· 31~60일 지급: 0.15%(+0.05%p) |
| 공제대상금액 | 상생결제금액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결제 감소분 차감 |

### 0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 | 현 행 | 개 정 |
|---|---|---|
| 지원대상 | 영업중인 소상공인,<br>'20.1.31 이전 체결 임대차계약 | 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br>'20.2.1~'21.6.30<br>신규체결 계약까지 확대 |
| 적용기한 | 일몰(~'21.12.31) | 6개월 연장(~'22.6.30) |

### 0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연장

| | 현 행 | 개 정 |
|---|---|---|
| 공제율 | 경영성과급 지급액 10% | ▸ 경영성과급 지급액 15%(+5%p) |
| 공제요건 | 영업이익 발생 | ▸ 영업이익 발생요건 삭제 |
| 적용기한 | 일몰(~'21.12.31) | ▸ 3년 연장(~'24.12.31) |

### 0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21.1.1~'21.12.31 기부분)

| | 현 행 | 개 정 |
|---|---|---|
| 세액공제 |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 0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 | 현 행 | 개 정 | |
|---|---|---|---|---|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 ▸ 2,200만원 | +200만원 +30만 가구 |
|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 3,200만원 | |
|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 3,800만원 | |
|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송달 | | 우편 | 본인 신청 시 전자송달 | |

### 02 중소기업 '21년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 현 행 | 개 정 |
|---|---|---|
| 허용기간 | 직전 1개 과세연도 | 직전 2개 연도('19, 20년) |

### 03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확대

| | 현 행 | 개 정 |
|---|---|---|
| 재기 중소기업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대상 | 연매출액 10억원 미만,<br>일몰(~'21.12.31) | 연매출액 15억원 미만(+5억원),<br>2년 연장(~'23.12.31) |
| 재기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 '20.7.25 기준<br>징수곤란 체납액 | '21.7.25 기준(+1년)<br>징수곤란 체납액까지 확대 |

##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 0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불성실제출 가산세 신설

### 02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
|---|---|---|
| 대상범위 |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br>매출액 70% 이상 |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br>매출액 50% 이상(△20%p) |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과세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 0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화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신고자료 의무제출 범위* 확대
  *(현행)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처분 내역 → (개정) 해외부동산 보유내역까지 확대
-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 현 행 | 개 정 |
|---|---|---|
| 세부담률 판정기준 |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br>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br>70% 이하로 상향 |
| 특정외국법인 범위 | 법인에 한해 적용 |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 |

### 02 가상자산 압류 매각을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 강화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0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 현 행 | 개 정 |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br>* 국세 세목별·납부고지서별, 관세(세관장 징수 내국세 포함) | 150만원 미만(+5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0.025% | 일 0.019~0.022% |

### 0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 현 행 | 개 정 |
|---|---|---|
| 매입세액공제 인정 계산서 |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

##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0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 현 행 | | 개 정 | | |
|---|---|---|---|---|
| 배당소득 특례 | 비과세 |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 특례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선택 허용 |
| | 9% 분리과세 | | 9% 분리과세 | |
| | 14% 분리과세 | | 14% 분리과세 | |

### 02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HS 2022, '22.1.1)에 따른 품목분류 등 관세율표 전면 개편

부산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 부산상공인과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헌혈영웅!

# 여러분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 단체헌혈 문의

- 헌혈버스가 회원사를 방문합니다. (헌혈희망자 20명이상 회원사)
- 연락처 : 부산혈액원 헌혈개발팀 (051-810-9023)

♥ 헌혈의집 안내

| 지역별 | 센터명 | 지역별 | 센터명 |
|---|---|---|---|
| 금정구 | 장전센터, 부산대학로센터 | 사상구 | 사상센터 |
| 남구 | 대연센터 | 사하구 | 하단센터 |
| 부산진구 | 서면센터, 서면로센터, 부전센터 | 중구 | 남포센터 |
| 북구 | 덕천센터 | 해운대구 | 해운대센터 |

**네이버 검색 :** 부산 헌혈의집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 www.bloodinfo.net

사람투자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 근로자-기업-국가 모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 근로자 | 기업 | 국가 |
|---|---|---|
| | | |
| 청년 조기 입직,<br>국가자격 취득,<br>체계적인 직무능력 향상 | 현장중심 핵심인재 육성,<br>교육비용 절감,<br>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br>장기근속 유도 | 국가경쟁력 제고,<br>노동시장의 인력<br>미스매치 해소 |

**일학습병행?**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 ' 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혜택 (세제 지원 등 추가혜택 수립 중)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Best HRD 심사평가 우대
-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 조달청
  > 물품제조 / 입찰 적격심사 가점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 가점
- 안전보건공단
  >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지원

훈련비용,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등

### 훈련장려금과 타 사업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1.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수급 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복수급 불가)
2. 타부처, 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타부처, 지자체의 해당사업에서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 제외)

**스펙초월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성대학교 IPP IPP사업단

참여신청 및 문의
경성대학교 IPP사업단
t 051-663-5612
e pethsas@ks.ac.kr

#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은 최신 교육 장비를 활용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 및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최고의 직업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 ▶ 취업을 위한 기술인력 채용예정자 과정

| 과 정 명 | 훈련직종 | 교육기간 | 취업 희망 업종 | 수료시점 |
|---|---|---|---|---|
| 3D CAD 디지털목업 활용 컴퓨터응용설계제작 | 기계분야 | 10개월 | 기계가공 및 설계분야 | 10월 중순 |
|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실무 | 자동화분야 | 10개월 | 전기 및 자동화분야 | 11월 중순 |
| 차세대 이동수단 드론 시제품설계제작 | 금형분야 | 10개월 | 기계가공 및 금형제작분야 | 12월 말 |
| 스마트제조 융합 IOT실무 | 자동화 IOT분야 | 10개월 | 전기 및 스마트제조분야 | 9월 중순 |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설계 | 조선 설계 분야 | 2개월 | 대우조선 설계분야 협력사 | 12월 초 |
| 부엌가구인테리어시공 | 한샘부엌가구시공 | 2개월 | 한샘부엌가구시공사 | 11월 초 |

## ▶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과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무료참여

| 과 정 명 | 교육시간 | 과 정 명 | 교육시간 |
|---|---|---|---|
| 소형무인기를 활용한 시설물 점검 | 16시간 | ISO품질 내부감사원 적합성 평가실무 | 16시간 |
|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3D 맵핑] | 16시간 | 품질 데이터 분석 실무자과정 | 16시간 |
| 3D DATA 구축을 위한 ICADPLUS 과정 | 20시간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 8시간 |
| AutoCAD[2D]를 활용한 기계부품설계실무 | 16시간 | 설비보전을 위한 용접 | 8시간 |
| Inventor를 활용한 기계요소설계[3D] | 16시간 |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시스템 구축 | 8시간 |
| SolidEdge 3D부품 설계실무 | 20시간 | 파이썬 [Python]활용 업무 자동화 | 16시간 |
| 설계자를 위한 구조해석 및 열해석 | 16시간 |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 8시간 |
|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PLC(MELSEC) 제어 실무 | 16시간 | 생산 데이터 관리(엑셀)_중장년 ICT | 16시간 |
|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PLC(SIEMENS) 제어 실무 | 16시간 | | |

## ▶ 교육기간의 임금지원을 위한 유급휴가훈련과정

기업의 일시적 업무 공백 기간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속 5일의 교육 참여를 위한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제도

| 과 정 명 | 교육시간 | 교육 기간 | 임금지원 한도 |
|---|---|---|---|
| AM을 활용한 라이버러리 구축 실무(유급) | 5일 40시간 | 협약기업 요구에 따른 수시 지원 | 지급 통상임금 기준,<br>교육참여 40시간 기준,<br>최저임금 150%이내<br>348,800원 ~ 523,200원 |
| AVEVA Design을 활용한 개조(역설계) 실무(유급) | 5일 40시간 | | |
| 기계장치설계 향상과정 | 5일 40시간 | | |
| 불량제로를 위한 품질전략수립 | 5일 40시간 | | |
| 조선 기자재 용접(ARC, CO2) | 5일 40시간 | | |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 부산인력개발원 교육기획처 기업교육팀
Tel 051-610-3125~7 Fax 051-611-1616 E-mail kimsy22@korcham.net

# 서울역사 내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나보세요

**이용대상**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

**위 치** 서울역 4층

**운영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 휴관

**이용방법**
- 사전예약(홈페이지, 모바일) 우선
  - 홈페이지 www.dongnambiz.kr
  - 모 바 일 m.dongnambiz.kr
- 현장등록

**이 용 료** 무료

**예약절차**

홈페이지 접속 ▶ 이용자 등록 ▶ 회의실 검색 ▶ 예약정보 입력 ▶ 예약승인

사업자등록증 첨부

**라운지**
회의 및 간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커피, 차 등 음료가 있는 휴게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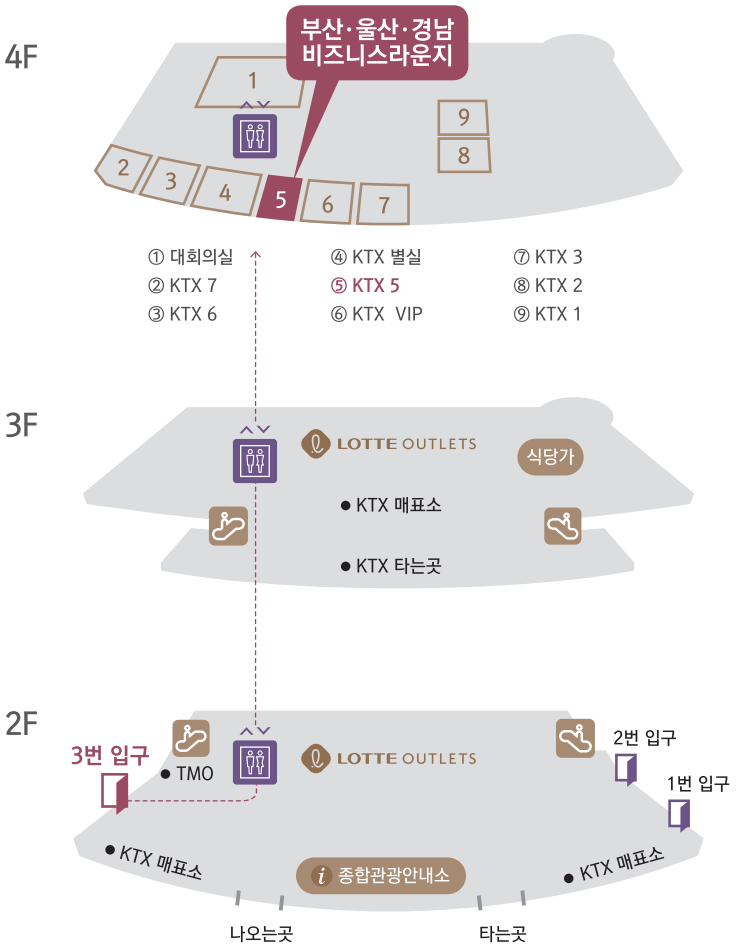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비즈니스 미팅룸

**사무기기**
복합기(컬러복사, 스캔, 팩스)
노트북(한글·MS오피스)

**신문 및 간행물**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기업지원사업안내 책자 및 브로슈어

## 오시는 길

서울역 2층 또는 3층에서 **3번 입구쪽** 엘리베이터 이용





문 의 T. 02-313-1888 F. 02-313-1890
www.dongnambiz.kr / m.dongnambiz.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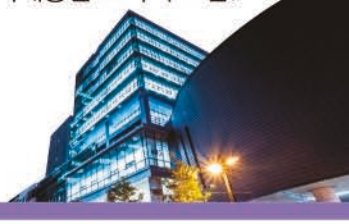
http://mba.donga.ac.kr

# 경영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2022학년도 동아대학교

# 경영대학원 신입생모집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동문이 강한! 사례중심 교육의 요람!



## 제56기 경영학석사학위과정 (MBA)

■ **모집학과** 경영학과

| 학과 | 모 집 인 원 |
|---|---|
| 경영학과(야간) | 70명 |

■ **전형일정**

| 구분 | 특 별 전 형 | 일 반 전 형 |
|---|---|---|
| 원서접수 | 2021.10.18.(월) ~ 11.05.(금) 24:00 | 2021.11.29(월) ~ 12.10.(금) 24:00 |
|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 | 2021.11.10.(수) 17:00까지 | 2021.12.15.(수) 17:00까지 |
| 구술면접고사 | 2021.11.12.(금) 18:00 | 2021.12.17.(금) 18:00 |
| 합격자 발표 | 2021.11.26.(금) 14:00 | 2021.12.24.(금) 14:00 |
| 합격자 등록 | 2022.01.05.(수) ~ 01.07.(금) 예정 | 2022.01.05.(수) ~ 01.07.(금) 예정 |

■ **학사·장학제도**

| | |
|---|---|
| 학사 |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수업(19:00~21:15)/5학기제<br>· 논문 / 무논문 학위과정 운영<br>· 학위취득 후 박사학위과정에 진학 가능 |
| 장학 | · 신입생 및 재학생 학업지속지원 장학금 지급(수업료 40%)<br>·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지급<br>(가족, 공무원, 동아의료원장학금 등) |

■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바로가기

## 제56기 최고경영자과정 (AMP)

■ **모집인원**

60명 내외

■ **전형일정**

· 접수 : 2021. 10. 25.(월) ~ 정원 충원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 입학지원서 제출
경영대학원 우편 및 방문제출
· 면접고사 :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바로가기

■ **교육기간**

· 2022년 3월~2023년 1월 (1년 과정)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19:00~21:00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강의 만족도 최상]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동문 네트워크 [동아대 졸업생 20만여명] [AMP 수료생 3천여명]

4차산업혁명 시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CEO의 예측 능력향상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업과 실행을 위한 Know-How 학습

■ **특전**

- 수료자에게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동아대학교 동문 자격 부여
- 동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 회원자격 부여
- 동아의료원 동문가족 진료카드 발급 및 감면 혜택
- 동문회 주최의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가

동아대학교 재학생 가족 및 AMP 기수료 원우 수강료 50% 감면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지원실
Tel (051)200-8412~3 Fax (051)200-8415